

정책연구 2005-19

# 제주형 축제평가모델 개발 연구

2005. 12

# 목 차

I. 연구 개요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1
3. 연구 방법 .....	2
4. 연구 범위 .....	2
II. 이론 연구 .....	3
1. 축제의 개념과 유형 .....	3
2. 축제의 전통적 기능 .....	6
3. 축제의 영향 .....	8
4. 축제의 추진체계 .....	9
III. 사례 분석 .....	21
1. 국내 사례 .....	21
가. 문화관광축제 현황 .....	21
나. 제주지역 축제 현황 .....	29
나. 문화관광부 선정 최우수축제 분석 .....	37
2. 국외 사례 .....	73

IV. 제주형 축제평가모델의 개발 .....	78
1. 축제평가모델의 배경 .....	78
가. 평가체계의 필요성 .....	78
나. 평가지표의 검토 .....	79
2. 제주형 축제평가모델 .....	83
가. 평가체계의 과정 .....	83
나. 제주형 평가기준표의 개발 .....	84
나. 평가의 실행 .....	86
□ 참고문헌 .....	87

## 표 목 차

<표 2-1> 축제의 전반적 수용태세 점검표 .....	14
<표 2-2> 시장조사의 세부 목표 및 영향변수 .....	17
<표 2-3> 축제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	19
<표 3-1>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 현황 .....	21
<표 3-2> 2005년도 문화관광축제 현황 .....	25
<표 3-3> 2006년도 문화관광축제 현황 .....	27
<표 3-4> 2006년도 문화관광축제 시도별 선정 현황 .....	28
<표 3-5> 2004년도 제주지역 축제 현황 .....	29
<표 3-6> 2005년도 제주지역 축제 현황 .....	33
<표 3-7>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축제 분석 .....	36
<표 3-8> 축제유형별 지역축제 분석 .....	36
<표 3-9> 2005년도 문화관광축제 만족도 비교 .....	69
<표 3-10> 2005년도 문화관광축제 부문별 장점 비교 .....	71
<표 3-11> 2005년도 문화관광축제 부문별 단점 비교 .....	72
<표 4-1> 문화관광축제의 세부 점검항목 및 평점 구분 .....	81
<표 4-2>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	82
<표 4-3> 제주형 우수축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	85

## 그림 목 차

<그림 2-1> 지역축제의 유형화 .....	5
<그림 2-2> 이벤트 개최의 파급 효과 .....	8
<그림 3-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방문객 만족도 .....	37
<그림 3-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1인당 소비지출 .....	38
<그림 3-3> 김제지평선축제 방문객 만족도 .....	46
<그림 3-4> 김제지평선축제 1인당 소비지출 .....	46
<그림 3-5> 강진청자문화제 방문객 만족도 .....	54
<그림 3-6> 강진청자문화제 1인당 소비지출 .....	55
<그림 3-7> 서귀포칠십리축제 방문객 만족도 .....	62
<그림 4-1> 단계별 평가지표 및 상관관계 .....	80
<그림 4-2> 제주지역 축제 통폐·합 방안 흐름도 .....	84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 배경

-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기대감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응집과 지역문화의 발굴 및 전승, 지역간의 문화교류 촉진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인 축제육성의 원인임.
- 제주지역 역시 2000년 30여종 정도였으나 2006년에는 총 47종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예정일 만큼 관광활성화와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각 시·군별로 다양한 지역축제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지역축제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축제가 본래의 기능이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자치단체와 사회단체의 전시성 행사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과연 제주지역의 축제가 얼마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평가를 하여야 할 시점임.
- 이에 본 글에서는 제주지역의 축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제주지역의 축제를 발전시키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

##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지역 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육성·지원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축제평가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음.

-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제주지역 축제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와 개선점 등의 여부를 파악함.
  - 문화관광부가 실시하는 축제평가기준을 파악하여 제주지역 축제평가에 적합성을 분석하고, 제주형 축제평가모델 개발의 기준으로 활용함.
  - 기타 선진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주지역에의 적용가능성과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와 자료분석(literature study and data analysis).
-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case study).

### 4.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분석의 기준년도 : 2005년
- 내용적 범위
  -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축제가 갖는 의의와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지역축제 평가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
  -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현황분석과 국·내외 축제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탐색함.
  - 다양한 축제평가제도의 검토를 통하여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제주형 축제 평가모델을 개발함.

## II. 이론 연구

### 1. 축제의 개념과 유형

#### 가. 축제의 개념

- 한국문화정책개발원<sup>1)</sup>은 축제를 농업·종교·사회·문화의 어떤 사건이나 절기를 기념하여 그것을 의례적으로 축하하는 어느 날이나 기간으로 개념 지었으며, 일반적으로 종교적 내지 의례적인 연원을 갖는다고 했음.
- 함석중은 축제를 축(祝)과 제(祭)일이 겹치는 날로 축일은 기쁘게 빌어서 마음의 안락을 가지는 날이요, 제일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예절을 표하는 향사(享祀)를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음.<sup>2)</sup>
- 조배행<sup>3)</sup>은 축제를 공공적이고 주제를 가진 축하 행사로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음.
- 박철·손해식<sup>4)</sup>은 지역문화가 종합화되고 축약적으로 상징화된 행사로써 한 지역을 관광상품화하는 핵심으로 보고 있음.
- 이강욱<sup>5)</sup>은 문화관광축제를 문화적인 요소와 테마를 지닌 지역 축제가 관광자원화의 목적을 지닐 때 ‘문화관광’과 ‘축제’의 합성어인 ‘문화관광축제’라는 용어로 정의될 수 있다고 강조함.
- 김성혁<sup>6)</sup>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원을 두고 대중적이며 주제가 있는 행사 또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배울거리 등을 관광객에게 제공하

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1994, p.25.

2) 함석중, “한국향토문화제의 관광대상화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28.

3) 조배행, 「'88서울올림픽의 관광에 대한 영향연구」, 서울 : 한국관광연구원, 1999, p.4.

4) 박철·손해식,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의례분석적 접근과 관광상품화 전략,” 관광학연구 특별호, 제22권 제2호, 한국관광학회, 1998, p.43.

5) 이강욱,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 방안-금산인삼축제 사례연구-」, 한국관광연구원, 1998, pp.6-7.

6) 김성혁·고호석·김순하, “지역축제 관광객의 시장세분화와 선택속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학연구, 24(1), 한국관광학회, 2000, p.26.



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객들이 실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제반 행사로 보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sup>7)</sup>는 문화관광축제를 매년 정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지역축제는 문화관광축제를 제외한 모든 축제라는 의미로 보고 있으며, 또한 축제란 문화관광축제와 지역축제를 합친 개념으로 보고 있음.
- 결국 축제는 지역 문화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벤트로서 모든 축제의 기초는 그것이 성스러운 것이든 세속적이든 제의와 기념식을 포함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주제가 있는 축하행사라고 할 수 있음.

## 나. 축제의 분류

- 축제의 분류는 연구자의 연구 방법 혹은 연구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축제의 개최 목적에 따른 분류, 행사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에 따른 분류, 축제의 주제(축제의 자원)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이장춘<sup>8)</sup>은 민속축제를 종합향토축제, 역사적·제의적 축제, 민속놀이 중심의 축제, 예술제, 경연대회 중심의 축제로 구분하였음.
- 문화체육부(현 문화관광부)<sup>9)</sup>에서는 축제의 개최 목적에 따라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로 분류하고 있음. 또한 축제의 프로그램 구성형식에 따라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로 분류하고 있음.
- 장정룡<sup>10)</sup>은 종합형 향토문화축제, 역사·제의형 축제, 민속놀이경연 중심의 축제, 예술제 등으로 구분하였음.
- 서연호<sup>11)</sup>는 역사적 시점에서 전통축제와 현대축제로, 공간적 측면에서 지

7) 한국관광공사, 「축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0, p.3.

8) 이장춘, “무형문화재 등의 정기공연 정착화를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월간관협 9월호, 한국관광협회, 1993, pp.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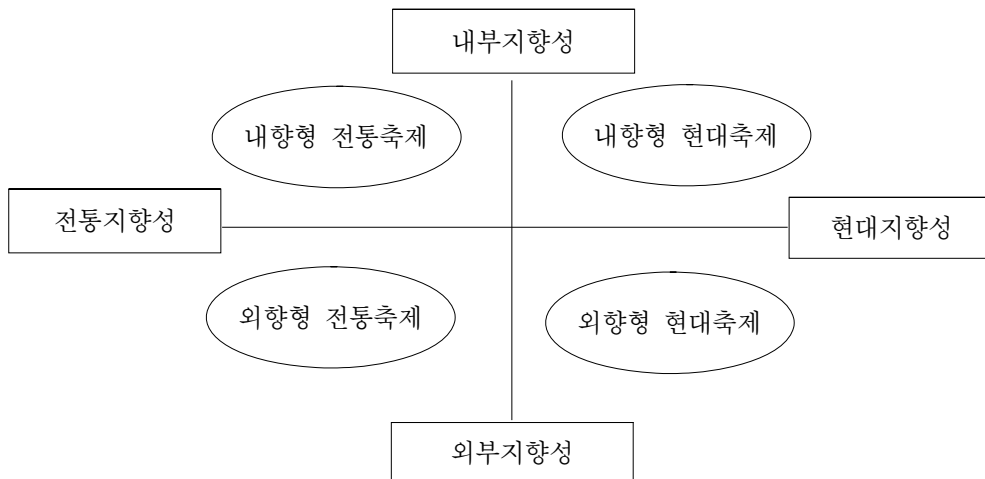
9) 문화체육부, 「한국의 지역축제」, 1996, p.9.

10) 장정룡, “강원도 축제문화의 이해와 반성,” 강원민속학, 제12집, 1996.

11) 서연호, “축제의 미래를 위한 반성과 대안,” 「향토축제의 가능성과 미래」, 방일문화재단, 1994, pp.47-64.

역축제와 초지역적인 특별축제로 구분하고 있음.

- 함석중<sup>12)</sup>은 WTO 관광계획의 단계적 접근 방법과 Dumazier의 여가활동과 문화발전계획의 단계적 접근들을 원용하여 향토문화제를 관광대상화의 정도에 따라 저개발형 향토문화제, 발전도상형 향토문화제, 선진형 향토문화제로 구분하고 있음.
- 김병철<sup>13)</sup>은 축제의 지향성을 기준으로 지역축제를 유형화하였다. 축제의 지향점을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하였으며, 하나의 축은 주로 축제의 개최 목적이나 축제의 목표 대상에 따라 공동체 지향성-외부지향성으로 설정하였으며,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주로 축제의 소재나 프로그램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에 따라 전통지향성-현대지향성으로 구분하였음.



자료 : 김병철, 「강원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1998, p.56.

[그림 2-1] 지역축제의 유형화

12) 함석중, 전제논문.

30) 김병철, 「강원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1998.

- 정연정<sup>14)</sup>은 지역축제의 소재에 따른 분류로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적 환경이나 역사적 인물 등 지역적 특성을 소재(이천 도자기 축제, 금산 인삼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와 지역 특성과는 별개로 보편적이고 대중성이 있는 소재(부산의 국제영화제, 부천의 환타스틱영화제, 춘천 만화축제, 과천 마당극축제 등)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역축제의 기능적 분류로 주민화합형과 지역경제 활성화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서휘석·이동기<sup>15)</sup>는 지역의 특색있는 자연자원, 문화, 설화, 특산품 등을 이용한 지역축제(금산의 인삼축제, 부안의 해넘이축제, 무주의 반딧불축제 등)와 유형적이며 테마 중심의 인위적 지역축제(강원국제관광엑스포, 익산의 보석문화축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sup>16)</sup>에서는 지역 축제를 주제별과 공사의 분류기준(예산규모, 행사기간, 축제홍보,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음.

## 2. 축제의 전통적 기능

### 가. 축제의 성격

- 고의적 과잉성(過剩性).
  - 축제때는 일상생활의 궤도에서 벗어나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됨. 경우에 따라 전통적인 도덕성이나 금기시해 온 행동들도 잠정적으로 구속력이 완화되고, 축제 참가자들도 각자 기묘한 복장과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잠시나마 인습적인 과거와 현재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됨.
- 긍정성(肯定性).
  - 축제는 언제나 생을 긍정하는 자세를 보여줌. 인간생활이 고뇌와 번민, 절망 등을 모두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14) 정연정, “직지축제의 발상전환을 위하여,” 충북리포트, Vol. 6, No. 2, 충북개발연구원, 1999, p.53.

15) 서휘석·이동기, 진계논문, p.70.

16) 한국관광공사, 「축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 상계서, pp.4-46.

수 있다는 기대감을 축하하기도 함.

○ 대국성(對局性).

- 대국성이란 과잉적 요소와 관련되는 하나의 뚜렷한 대조성을 보인다는 뜻임. 축제는 일상생활과 상이한 것이지만, 일하고 생활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님. 즉 축의적(祝儀的)인 과잉성을 함축하면서도 일상생활의 작업관례, 중요성 등을 잘 대조시켜 나가는 것으로 예를 들면, 우리의 농악놀이, 배짜기 대회 등은 과잉성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실생활 중심과 대칭적으로 비교되어 나타남.

## 나. 축제의 기능

- 임재해<sup>17)</sup>는 우리나라의 전통축제들이 과거 전통사회에서 행해온 기능은 특히 마을굿인 동제(洞祭)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함. 동제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에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제사하는 마을의 공동제로서 종교적 기능,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축제적 기능, 예술적 기능, 경제적 기능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한국문화정책개발원<sup>18)</sup>은 축제의 기능을 통합과 신명, 조화로 보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sup>19)</sup>에서는 축제의 기능을 억압된 인간의 감정과 행동 표현의 기회 제공, 인간본연의 위치 발견, 사회 비판적인 기능, 개발도상국가의 사회적 기능,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sup>20)</sup>는 지역축제 및 이벤트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관광적지로서 지역의 매력도 제고 기능,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관광성수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관광시즌을 창출하는 기능, 전 지역의 관광지화 유발, 지역전통과 역사의 재연을 통해 문화관광시설이나 관광지의 활성화에 기여, 관광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 데 기여, 지역사회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대한

17)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1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1994, pp.38-39.

19) 한국관광공사,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1995, pp.451-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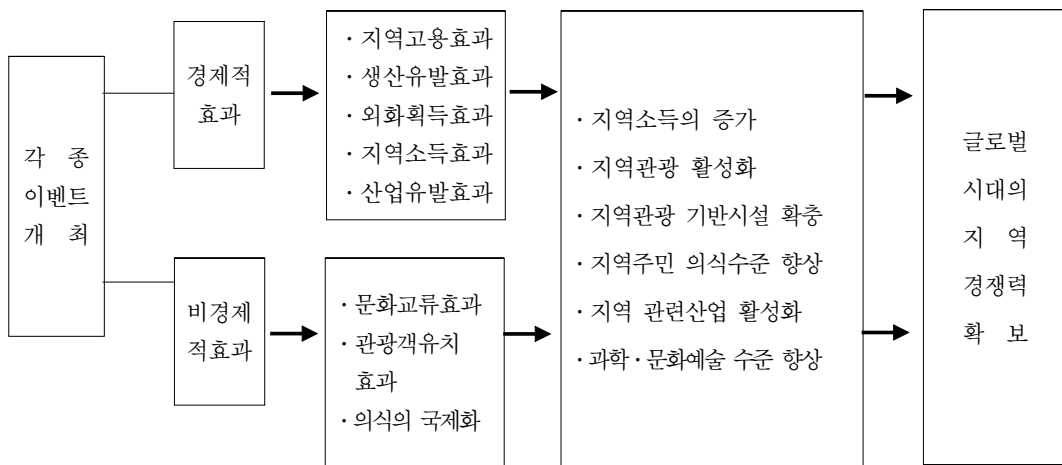
20) 한국관광공사, 「국내 문화행사 관광상품화 방안」, 1995, pp.23-24.

기능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문화정책개발원<sup>21)</sup>에서는 현대사회의 지역축제는 지역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상품화라는 다기능적 효용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 3. 축제의 영향

- 최승담<sup>22)</sup>은 문화축제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음. 첫째, 축제는 지역 공동체를 결합시키는 힘을 갖음. 둘째, 축제는 관광목적지로서 해당지역의 강렬한 이미지를 형성시킴. 셋째, 축제는 관광수입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정삼철<sup>23)</sup>은 경제적 효과와 비경제적 효과로 구분하여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대의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영향을 갖고 있다고 하였음.



[그림 2-2] 이벤트 개최의 파급 효과

2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백제문화권의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관광상품 개발방안 연구」, 1997, pp.12-13.  
 22) 최승담, “지역관광개발의 실패와 편협한 사고,” 김사헌 외 10인, 지방화시대의 관광 개발, 서울 : 일신사, 1995, p.160.  
 23) 정삼철, 충북 밀레니엄 대축제 개최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1998, pp.27-32.

- 이강욱<sup>24)</sup>은 축제의 영향을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 정치적 영향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축제 기획·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의도는 축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영향 변수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4. 축제의 추진체계

- 축제의 추진체계는 크게 축제의 기획, 축제의 기획입안(기본계획), 축제 기획의 구체적인 입안(실시계획), 고지·PR단계와 병행되는 제작단계, 리허설을 거쳐 실시운영과 마지막 평가(행사후 업무)까지로 구성되며, 익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한 축제의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함.<sup>25)</sup>

##### 가. 기획단계

###### 1) 축제의 목표 설정

- 각각의 축제나 이벤트가 각기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지만 최근의 세계화·지방화 시대라는 환경적 요인과 이벤트 관광의 시각을 고려하여, 조직적·경제적·관광마케팅 측면의 최종 목표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 최종 목표는 수년간의 이벤트 조직체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한 것이어야 하지만 이벤트 활동에 한정적인 것만을 고집하지 않는 유동적인 면도 갖추어야 한다. 정해진 최종 목표는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과 평가 결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24) 이강욱, 전게서, pp.58-59.

25)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축제의 진단과 발전 방안, 2000, p.14부터 재인용

-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에 축제 관련 개별자들의 목표는 다를 수 있음.
- 축제 방문객은 축제의 관람으로부터 관광과 여가를 통한 관광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것임.
- 반면에 지역의 관광 관련 사업체는 축제를 통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성을 기대할 것이며,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유사하게 관광축제를 통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성을 기대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임.
- 축제를 지원하는 스폰서의 목적은 축제 지원인데 주로 협찬금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체들이 축제 등 각종 이벤트로부터 추구하는 편익은 인지도 향상, 이미지 향상, 상품의 시범적인 사용이나 세일즈 기회, 환대 기회 등임.
- 축제의 성공은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 달려 있는데 축제가 개최되고 있을 때만 임무를 맡는게 아니라 기획, 재정 확충, 조직, 그리고 마케팅 기능 등 다방면에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자원봉사자들의 축제에 관련하여 동기, 행동, 그리고 지각은 축제를 기획하고 경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축제는 그 지역 기업체의 협조, 공공 서비스 제공업자, 그리고 거주민 뿐만 아니라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거주·비거주 자원봉사자들에게 달려 있음.
- 방문객, 지역주민, 지방정부, 지역 사업체, 스폰서 등 각 개별적 목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목표의 우선 순위 및 다양한 의견 수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한편, 축제 목표의 우선 순위 결정은 축제의 국가적 목표와 지방 정부의 목표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사하게 지방정부와 각 개별 행사 관련자간에도 서로 다른 목표로 인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
- 이들 목표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 목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인데, 정책 목표에 대한 투표실시, 주민들의 설득, 교육 등으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함.

-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목표 설정은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참여 및 무관심으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유도하기는 쉽지 않음. 따라서 목표간의 갈등 요인에 대한 분석 평가를 위한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임.

## 2) 기간·세부행사 내용의 조기 확정 및 정례화

- 대부분의 지역 축제가 개최시기가 임박하여 기간, 세부내용 등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정례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축제의 기간이나 세부행사 내용의 조기 확정 및 정례화는 축제 주관처·주최측의 담당자, 관광업자, 관광객, 지역주민 등 모두에게 축제에 대한 신뢰감과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함. 예를 들어 여행업자에게는 축제를 테마로한 여행상품 개발시 축제 일정과 행사 내용이 최소 6개월 전에 확정되어야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홍보할 수 있음.
- 축제의 홍보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므로, 축제 개최기간중에 차기 연도의 축제기간 및 세부행사 내용 등을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음.

## 3) 관광객 참여 이벤트 개발

- 관광객의 최근 성향이 '보는 관광'에서 '체험 관광'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을 이벤트화하여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행사 주체자들이나 관람객들이 모두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개발이 필요함. 이벤트는 개최되는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매력과 창의성이 있어야 하며, 유명한 축제의 이벤트를 벤치마킹하더라도 그 지역 축제만의 창의성이 있어야 함.



#### 4) 축제의 차별성

- 타 축제와 소재만 다르고 내용은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음. 무절제한 벤치마킹으로 각 지자체의 축제가 비슷해지고 결국 서로에게 피해만 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
- 지역의 특이한 전통문화 즉, 유·무형문화재, 민속놀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유사행사 기획을 자제 하고, 지역간 차별성이 없는 백화점식 행사를 지양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중복되는 지역축제를 공동개최 또는 통·폐합하는 방안이 필요함.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인접 지자체간, 광역자치단체별로 '관광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제를 포함해 지역관광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5) 지역소득 증대방안 모색

-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공예대전, 1지역 1명소 1명품 사업 등과 연계하여 특산품(농/수/임/축산물)코너 설치 및 판로개척(할인, 홍보 등)을 함.
- 주변 상가, 숙박업소에 대하여 사전 친절·서비스·청결 캠페인을 사전에 함으로써 방문객의 지역내 체류방안을 강구해야 함.
- 참여 이벤트라 하더라도 주최측만이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참가비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 개발이 필요함.
- 무료이거나 투자액 회수 수준에서 최저 입장료를 결정함. 이벤트 가격전략은 무료적인 측면과 유료적인 측면을 적절히 복합적으로 이용해야 함. 전문적인 공연단이 출연하는 축제가거나 시설 기자재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벤트의 경우 투자액 회수 수준의 입장료 결정이 있어야 함.
- 특산품 판매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획일적인 부스 운영을 지양하고 특산품 판매부스의 차별화를 시도함. 예를 들어 부스 제작의 다양화로 외지인 부스, 지역주민 부스 특산품 부스 등으로 구분하여 판매분위기를 제고함. 또

한 판매원의 사전 친절 및 서비스 교육, 특산품에 대한 설명기술 교육 등을 실시함. 할인판매로 대도시권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는 인상을 주어야 함.

- 대부분의 축제의 경우 캐릭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실정임. 캐릭터는 해당 축제의 상징물이자 강력한 홍보 이미지를 대외에 표출할 수 있는 요소이며 판로개척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음.

## 6) 인근 시·군과의 전략적 연계방안 강구

- 교통, 숙박, 음식, 기념품, 특산품, 관광코스, 인력지원, 공동홍보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인근 시·군과의 전략적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함. 축제가 개최되는 시·군 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군도 축제장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평소에 시·군은 관광협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간 정보의 공유, 협조체제 구축 등을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 7) 축제안내체계 개선

- 외래객이 방문시 동선에 따라 입구(역, 터미널, 톨게이트 등)에서 목적지까지 무리없이 찾을 수 있도록 처음 찾는 방문객의 입장에서 안내체계를 개선해야 함.
- 행사장은 물론 곳곳에 안내부스를 설치하고 근무자를 항상 정위치시켜 편안한 방문이 될 수 있게 해야 함. 또한 안내방송은 관람객들에게 행사일정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주요 행사장 및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지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객들이 모이지 않아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함.

## 8) 축제전담 공무원 육성

- 행사기획 및 운영, 통역·관광안내원 등 축제 관계 요원을 양성하여 행사 진행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행사를 앞두고 전담 공무원의 인사 이동이 없어야 하며, 잦은 인사 이동(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담당자 교체시 충분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져 축제기획·운영에 무리가 없어야 함.

## 9) 전반적 수용태세 점검

- 전반적 수용태세 점검은 방문객을 위한 관광안내정보체계 점검, 교통체계 점검, 숙박체계 점검, 음식점체계 점검,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체계 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표 2-1>에 제시하였음.

<표 2-1> 축제의 전반적 수용태세 점검표

구 분	내 용
방문객을 위한 관광안내정보체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도착전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자체에 대한 소개</li> <li>- 축제가 열리는 고장에 대한 소개(위치, 역사, 문화, 기후, 주변 관광자원, 특산물 등)</li> <li>- 이용가능한 숙박시설(시설수준, 예약필요성, 현지 위치)</li> <li>- 식음료시설 : 지역 고유의 향토적 음식, 기존 식당업소, 축제 관련 식음료 이벤트</li> <li>- 기타 연계 관광코스, 교통상황 등</li> </ul> </li> <li>· 현지 도착후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의 관광안내소, 안내요원, 역, 터미널, 고속도로 진출입 지역 주변, 시내 주요 지역(주요 기관, 건물주변)</li> <li>- 축제 관련 구체적 행사일정, 장소, 부대시설(프로그램, 브로셔 활용)</li> <li>- 행사장소, 주변 숙박시설, 관광자원이 표시된 간략한 관광지도에 나타날 각 상업시설을 인쇄 스폰서로 활용</li> </ul> </li> </ul>
교통체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로의 교통 : 필요시 현지로의 특별열차 마련/고속버스, 시외버스 운항편수의 증설/축제행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패키지의 마련</li> <li>· 도착후의 교통 : 시내버스 운항편수의 증설, 운행시간 연장, 행사장 직행 전용 셔틀버스 운영, 공터, 유흥지 등의 주차장 확보</li> </ul>

구 분	내 용
숙박체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시설 점검 : 청결, 요금, 서비스 현황, 안전 등</li> <li>· 예약제도 확립 : 업소간 연락체계 구축으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유휴객실이 생기는 결과를 방지</li> <li>· 모든 고객을 평생고객으로 보고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li> <li>· 방문객이 찾은 숙박시설은 축제와 주변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소 역할을 하여야 함(행사안내소, 지도 등을 필요한 고객에게 배부)</li> </ul>
음식점체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적 음식 : 주요 관광 유인물, 축제효과 극대화 요소</li> <li>· 음식축제가 지방축제 행사의 일부로서 인식되어야 함</li> <li>· 관련 업소(식당, 여관, 호텔 등)의 협소, 비위생, 부당요금 징수 문제 해결</li> <li>· 명확한 장소에 축제지정업소라고 부착을 하고 관련 업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하에 상기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체계 명시 등 행사장 외부여건 개선</li> </ul>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체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행사참가 방문객, 관광객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내의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li> <li>· 축제가 관광자원으로 인식되는 기회</li> <li>· 축제기획시 반드시 주변 관광자원을 점검하여 연계관광의 실을 거둠</li> <li>· 여행사 및 공사와 협의 추진 : 대도시를 출발, 축제장·인근 관광지·식사·교통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 개발(당일/1박 2일 등)</li> </ul>

자료 : 한국관광공사, 「축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0, pp.11-13.

## 10) 축제 행사장 진행요원의 확보 및 사전교육

- 현장에서 참가객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안내도우미를 비롯한 행사 진행요원 임으로 이들에 대한 사전 예절교육과 현장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관람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친절과 미소, 행사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적절한 설명은 관광객의 축제 및 해당 지자체에 대한 이미지 상승효과를 유발함.

## 나. 홍보 및 상품화 단계

### 1) 여행사 모객 유인 제공

- 시·군 및 축제추진위원회는 기획단계에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 의견 수렴을 해야 함.
- 대도시권에서의 관광객 모집을 위해 언론사·여행사·공사 대상 팸투어, 관광설명회 등으로 지역 알리기 방안을 강구함.

### 2) 홍보 및 마케팅

- 설정된 축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에 대한 시장 분석이 필요함. 이는 방문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즉, 방문객의 지리적 시장, 여행행태, 방문동기, 정보매체, 방문객의 주요 활동, 만족도 등이 명확한 분석 모형의 설정이 요구됨. 이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을 세분하고, 세부 전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시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과 영향 변수는 <표 2-2>와 같음.
- 방문객의 권역별 분석과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은 효율적인 홍보활동에 도움을 줌. 또한 여행행태에 대한 사전 조사는 관람객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사프로그램 개발과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숙박유형의 파악은 관광수용체계를 유형화시켜 보다 효율적인 축제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됨.
- 방문동기의 분석은 축제의 주제 개발과 행사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상할 수 있을 것이고, 방문객의 만족도 분석은 차기에 개최되는 축제에서 초래되었던 불편 사항에 관한 개선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모색하게 하며, 방문객의 지출형태 분석은 지역 관광사업체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지역축제를 전국적 규모의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느끼고 있는 축제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분

석하고 여타 축제와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미지 요인을 발굴하여 해당 지역축제를 특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임.

<표 2-2> 시장조사의 세부 목표 및 영향변수

구 분	세부 목표	영향 변수
방문객의 지역	· 국내·외 주제관광수요 추정 · 축제관련관광코스개발	· 지역외, 지역내 · 국내, 외국
인구통계	· 시장분석의 인구통계적 분석 · 사회계층별 분석	· 연령, 성별 · 소득수준, 교육수준 · 직업상태
여행행태	· 축제현장의 관광시설 및 서비스 개선	· 개인·가족, 친구·친척 · 단체(패키지 종류) · 동반여행자수 · 교통수단 · 숙박시설, 숙박일수
방문동기	· 축제의 주제개발 및 행사 구성 개발	· 축제 그자체 · 관광목적 · 교양·학술 목적
정보매체	· 홍보와 광고 극대화	· TV·라디오 · 신문, 잡지 · 구전 · 인터넷
방문객 활동	· 행사프로그램개발(예, 모험적, 쾌락적, 충동적, 자기만족, 남성적, 지적 등)	· 축제행사참가 · 방문지역에서 활동 · 희망하는 경험 및 활동
방문객의 만족도	· 축제상품 및 서비스의 개선	· 상품과 서비스 · 만족했던 사항 · 불편(불쾌)했던 사항 · 재방문의사
방문객의 지출	· 축제 행사지역내에서 지출행태	· 축제현장에서 지출(숙박, 식음료, 오락, 교통비, 기념품, 기타쇼핑 등) · 축제현장 외부에서 지출

## 다. 운영 단계

### 1) 축제분위기 거양 및 개·폐막식 행사 재정비

- 국내·외 관광객 환영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행사장 외 지역 입구(터미널 등) 및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등을 설치하여 환영 분위기를 조성함.
- 흔히 개막식에 자치단체장을 비롯 다수의 지역유지나 국회의원 등의 환영사가 개막식 소요시간의 절반을 차지, 참가자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 점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두 사람 이하로 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2) 주무대 활용도 제고

- 주무대는 개·폐막식 외에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규모 이벤트 등을 개발하여 항상 축제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주무대는 외래객 방문시 처음 찾는 곳이므로 축제에 관한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행사 세부내용, 주변시설 등을 시간차를 두어 한국어, 외국어를 병행하는 장내방송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

### 3) 개별이벤트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 강화

- 행사 본부 내·외근 직원 구분으로 일사불란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함. 행사 진행요원과 업체 직원과의 외양 구분 불분명은 행사장 무질서 및 행사 관련 문의시 불친절, 정보제공의 상이 현상 등이 발생하게 할 수 있음.
- 이벤트사 혹은 시·군청 각 부서에 일임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함. 그렇지 않으면 행동의 통일성 파괴, 사전계획과 상이한 행사 진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4) 점검표를 통해 행사진행사항 철저한 체크

- 기획에서 행사종료까지 점검표를 만들지 않은 채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주먹구구식 행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실 있는 행사보다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음.
- 금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차기 행사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1회로 그치는 소비성 행사라는 인식을 불식해야 함.

### 라. 사후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단계

#### 1) 외부 전문가에 의한 축제평가 실시

- 축제의 기획과 집행단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임.

<표 2-3> 축제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구 분	내 용
관광객 분석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 대비 관광객 비율</li> <li>· 내국인 방문객 분석(지역별, 목적별 분석)</li> <li>· 외국인 방문객 분석(국가별, 목적별 분석)</li> <li>· 관광객들의 쇼핑지출액</li> <li>· 관광객들에 유효한 축제의 주요 홍보매체</li> </ul>
축제평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객 안내체계(안내부스, 행사안내서 구성, 안내요원에 대한 교육실시)</li> <li>· 전체적인 행사의 짜임새</li> <li>· 주요 관광이벤트에 대한 방문객 반응</li> <li>·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의 다양성</li> <li>· 편의시설 및 주차의 편리성</li> <li>· 음식 판매부스 및 가격, 잡상인 통제 여부</li> </ul>
지자체의 축제 추진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홍보노력</li> <li>· 합리적인 축제 경영 여부</li> </ul>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상품 개발(특산품 관광상품화) 및 판매가격</li> <li>· 축제상품 판매 매출액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li> <li>· 관광객의 음식, 숙박지출을 통한 관광경제 기여효과</li> </ul>

자료 : 한국관광공사, 「축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0, p.35.



- 축제에 대한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축제 자체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외부 전문가(관련 분야 교수, 업계 종사자 등)에 의한 축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시 주의할 점은 첫째, 잘된 점만을 평가하는 사람은 차기 평가자 명단에서 제외함. 둘째, 차후 개선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유도해 주어야 한다. 셋째, 참가 방문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유도함. 넷째, 행사진행에 대한 각 분야별 항목을 조사해야 함.

## 2) 평가내용 반영 및 평가보고서의 활용

- 평가보고서를 차기 행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실무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평가보고서에 의해 차기 행사를 준비하도록 교육해야 함.

## 3)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시행착오 방지

- 평가보고회는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에 관여했던 모든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유도함.
- 이는 사후 관리차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된 단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아울러 차기년도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상호 협력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동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소중한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주관하에 경찰서장부터 환경미화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Ⅲ. 사례 분석

#### 1. 국내 사례

##### 가. 문화관광축제 현황

##### 1)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 현황

-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는 총37개로 지정축제가 23개(최우수 3개, 우수 9개, 육성 11개), 예비축제가 14개였음.
- 문화관광부는 이들 문화관광축제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9억 4천만원을 들여 최우수축제에는 각 1억 6천만원, 우수축제에는 9천 5백만원 등을 지원하였음.

<표 3-1>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 현황

축 제 명	기 간	주요 프로그램	비 고
인제 빙어축제	1.29~2. 1	○ 전통썰매타기(외발,탄통), 팽이치기, 연날리기, 널뛰기, 빙어낚시, 스키마차타기, 빙산볼링, 스노우모빌, 이글루체험, 빙어마당극 등	예비
경주 한국의술과 떡잔치	3.27~4. 1	○ 술·떡전시, 제조과정시연, 떡메치기시연, 디딜방아찜기, 전통혼례 및 관례재연, 달집태우기 등	우수
팔만대장경축제 (합천군)	4.23~4.27	○ 바라춤, 승무, 합천오광대공연, 팔만대장경 이운 경로 재연, 대장경 인경, 산사문화체험, 산사음악회 등	예비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아산시)온양 문화제	4.24~4.28	○ 거북선해전놀이, 난중일기 마당극, 무과전시재연, 한중일 군장체험, 전통대장간 체험, 헌정수 봉치식	육성 기간변경
한산 모시문화제 (서천군)	5. 1~5. 6	○ 한산모시제, 모시길쌈체험, 모시옷 입어보기, 천연 염색체험, 모시옷패션쇼, 한산모시디자인공모전 등	우수
함평 나비축제	5. 1~5. 9	○ 남도노동요, 호남가 경창대회, 기산제 재연, 나비 생태관 운영, 나비사랑 체험마당, 친환경농업체험장 등	육성

<계 속>

축 제 명	기 간	주요 프로그램	비 고
보성 다향제	5. 1~5.10	○다산제, 철쭉제례, 향토농악, 보성소리공연, 차잎 따기, 차 만들기, 차사랑 연등달기, 녹차팩 건강 미용체험, 다향의 밤, 차인의 밤 등	예비
전국민속투우축제 (정읍시)	5. 2~5. 6	○정읍사 국악단 공연, 소싸움·돼지싸움, 가족품평회, 승용마 시승식, 축산기자재 전시 등	예비
연천 구석기축제	5. 3~5. 5	○석기교실, 움집교실, 수렵·채집·벽화그리기, 불피우기, 주먹도끼만들기, 가족나무심기, 놀이기구, 선사체험장, 불의의식, 야간병영체험 등	예비
서울 약령시축제	5. 4~5. 8	○한약초사진전시회, 약재썰기대회, 건강박람회, 한방체험한마당, 우수한약재전시회 등	예비
춘향제 (남원시)	5. 4~5. 8	○춘향제향, 국악대진, 전국시조경창대회, 춘향그네뛰기, 창극 춘향전, 남원도예전, 국악대향연 등	육성
지리산한방·약초 축제(산청군)	5. 4~5. 8	○약초그리기·백일장, 약재 썰기, 한약달이기, 약초 동산 운영 등	예비
진도 영등축제	5. 5~5. 7	○영등살놀이(뗏목놀이, 용왕제, 바닷길영합회, 뽕할머니 씻김),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다시래기, 개메기체험 등	육성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 축제	5. 1~5. 5	○고유제, 제례악, 날피복춤, 비산농악, 한방요리전시, 약초꽃 사진전, 약썰기, 한약재 달이기 시연 등	우수 기간·명 칭변경
하동 야생차축제	5.20~5.23	○대렴공 각색 마당극, 어린이 차 예절 경연대회, 차잎따기, 산사문화체험, 범패공연, 차만들기 등	우수 (기간변경)
춘천 국제마임축제	5.26~5.30	○공식초청작품 공연, 가족을 위한 마임공연, 거리·방문공연, 마임캠프, 도깨비난장 등	우수
울산 고래축제	5.27~5.30	○고래잡이재현, 고래역사기행, 고래탐사, 고래당기기 대회, 바다그림그리기, 고래학술심포지움, 포경 전시회, 고래음악회	예비

<계 속>

축 제 명	기 간	주요 프로그램	비 고
보령 머드축제	7.16~7.22	○ 머드슬라이딩, 머드탕, 머드풍선, 머드왕선발대회, 셀프머드마사지체험, 머드교도소 등	우수
강진 청자문화제	7.31~8. 6	○ 청자과편모자이크만들기, 청자함께만들기, 청자학술 세미나 등	최우수
무주 반딧불축제	8.20~8.28	○ 반딧불이 신비탐험, 반딧불이 생태체험관 운영, 여치집만들기 등	우수
효석 문화제 (평창군)	9.10~9.19	○ 메밀꽃그리기, 전통민속놀이, 유리공예, 메밀국수, 메밀음식시식회, 달맞이행사, 문학의 밤, 영화상영 등	예비
금산 인삼축제	9.10~9.19	○ 전통민속놀이, 인삼캐기체험, 인삼농가민박, 약초썰기체험, 인삼약초만들어먹기 등	최우수
서귀포 칠십리축제	9.15~ 9.19	○ 제주목사순력행사재현, 바다낚시대회, 해녀태왁수영대회, 물허벅지기, 편수영대회 등	예비
봉화 송이축제	9.23~ 9.26	○ 전통혼례, 오광대놀이, 송이전시, 야생버섯전시, 송이채취, 메뚜기잡기, 민속놀이, 연등타기, 자연생태체험 등	예비
강화 고인돌축제	10. 1~10. 3	○ 토기제작, 원시 불 피우기, 돌탑 쌓기, 고인돌 축조재현, 팔만대장경 판각재현, 강화도령선발, 철종 등극행렬 등	예비
양양 송이축제	10. 1~10. 5	○ 송이채취현장체험, 송이농가 홈스테이, 전통혼례, 민속공연 등	육성
충주 세계무술축제	10. 1~ 10. 7	○ 국내외 무술시연, 태권무공연, 무술체험, 전통군장체험 등	우수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10.1~ 10.10	○ 탈춤공연, 도산별시, 차전놀이, 하회선유줄불놀이,탈그리기, 탈만들기, 탈춤배우기 등	최우수
진주 남강유등축제	10. 1~10.12	○ 세계의 등 전시, 소망등 달기, 창작등 만들기, 수상불꽃놀이, 진주성 전투 수상영상재현 등	육성
풍기 인삼축제 (영주시)	10. 6~10.10	○ 인삼요리경연, 인삼씨앗뿌리기, 인삼캐기 체험, 인삼인형극 전통농악 등	육성
김제 지평선축제	10.7~10.10	○ 벽골제사, 쌍용놀이, 만경들노래시연, 세계 농촌민속체험, 농촌에서의 하루 등	우수
난계국악축제 (영동군)	10. 9~10. 12	○ 전국 국악경연대회, 국악기체험, 난계 송모제, 외국인 국악공연대회, 난계국악단공연 등	육성 기간변경

<계 속>

축 제 명	기 간	주요 프로그램	비 고
진주 남강유등 축제	10. 1~10.12	○ 세계의 등 전시, 소망등 달기, 창작등 만들기, 수상 불꽃놀이, 진주성 전투 수상영상재현 등	육성
풍기 인삼축제 (영주시)	10. 6~10.10	○ 인삼요리경연, 인삼씨앗뿌리기, 인삼캐기 체험, 인삼인형극 전통농악 등	육성
김제 지평선축제	10.7~10.10	○ 벽골제사, 쌍용놀이, 만경들노래시연, 세계 농촌 민속체험, 농촌에서의 하루 등	우수
난계국악축제 (영동군)	10. 9~10. 12	○ 전국 국악경연대회, 국악기체험, 난계 송모제, 외국인 국악공연대회, 난계국악단공연 등	육성 기간변경
부산 자갈치축제	10.13~10.17	○ 외국인요리경연대회, 맨손으로 활어잡기, 생선회 정량달기, 수산물감짜경매 등	육성
강경 젓갈 축제 (논산시)	10.14~10.18	○ 젓갈김치담그기, 젓갈주먹밥, 강경포구벚길여행, 용왕제 재현, 풍물놀이 등	육성
광주 김치대축제	10.19~10.24	○ 김치담그기 체험코너, 자연체험학습장, 민속놀이 마당 등	육성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전남 순천)	10.19~10.24	○ 선릉제, 남도 들노래, 북춤, 마당극, 풍물놀이, 다도 시연, 부침개·부꾸미·과채즙 경연, 남도음식전시, 국악공연 등	예비
이천 햅쌀축제	10.21~10.24	○ 풍년 대동줄 만들기, 짚·풀 공예품만들기, 벼 탈곡체험, 인절미 만들기 등	예비

- 문화관광부 선정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 총37개 가운데 제주지역의 축제는 지정축제는 없이 서귀포 칠십리축제가 예비축제로 선정되는 나쁜 결과를 보임.
- 한편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결과평가의 결과 외국인관광객 23만명을 포함하여 총 2천 2백 86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경제효과 또한 8천 3백 52억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음.

## 2) 2005년도 문화관광축제 현황

- 2005년도 문화관광축제는 총45개로 대표축제가 18개(최우수 3개, 우수 7개, 지역육성 8개), 유망축제가 9개, 예비축제가 18개였음.
- 문화관광부는 이들 문화관광축제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5억여 원을 들여 최우수축제에는 각 2억 5천만원, 우수축제에는 1억 3천만원 등을 지원하였음.

<표 3-2> 2005년도 문화관광축제 현황

구 분		축 제 명		지원내역
		상반기(20개)	하반기(25개)	
대표 축제	최우수 (3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강진청자문화제, 김제지평선축제	축제별 사업비 2억 5천만원 지원
	우수 (7개)	춘천국제마임축제, 함평나비축제	금산인삼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양양송이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강경젓갈축제,	축제별 사업비 1억 3천만원 지원
	지역육성 (8개)	대구약령시축제, 한산모시축제(서천), 무주반딧불축제, 경주한국의술과떡잔치,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남원춘향제	보령머드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전남)	축제별 사업비 6천만원 지원
유망축제 (9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보성다향제, 인제빙어축제, 연천구석기축제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 광주김치대축제, 난계국악축제(영동), 풍기인삼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축제별 사업비 4천만원 지원

<계 속>

<p>예비축제 (18개)</p>	<p>지리산한방약초축제 (산청), 팔만대장경축제 (합천), 문경차사발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광안리어방축제, 화천산천어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북제주)</p>	<p>강화고인돌문화축제, 효석문화제(평창), 봉화송이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한국콩축제(광주), 무안백련축제, 원주한지문화제, 온양옹기축제(울산), 장단콩축제(과주), 모양성제(고창)</p>	<p>-</p>
-----------------------	--	--	----------

- 문화관광부는 2004년도에 비해 대표축제의 수를 23개에서 18개로 줄이는 결과를 택하였는데, 이는 숫자는 줄이되 지원금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우선지원하는 정책을 반영한 것이었음.
- 문화관광부 선정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 총45개 가운데 제주지역의 축제는 지정축제는 없이 정월대보름들불축제가 예비축제로 선정되는 나쁜 결과를 보임.

### 3) 2006년도 문화관광축제 현황

- 2006년도 문화관광축제는 총52개로 대표축제가 14개(최우수 5개, 우수 9개) 유망축제가 13개, 예비축제가 25개였음.
- 문화관광부는 이들 문화관광축제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최우수축제에는 각 3억원, 우수축제에는 1억 5천만원, 유망축제 5천만원 등을 지원하였음.
- 문화관광부는 2005년도에 이어 대표축제의 수를 18개에서 14개로 줄이는 결과를 택하였는데, 이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집중적으로 우선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반영한 것임.

<표 3-3> 2006년도 문화관광축제 현황

구 분		축 제 명		지원내역
		1월~6월 상반기(22개)	7월~12월 하반기(30개)	
대표 축제	최우수 (5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강진청자문화제, 김제지평선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보령머드축제	축제별 사업비 3억원 지원
	우수 (9개)	춘천국제마임축제, 함평나비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무주반딧불축제	금산인삼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양양송이축제, 부산자갈치축제, 강경젓갈축제	축제별 사업비 1억 5천만원 지원
유망축제 (13개)		경주한국의술과떡잔치,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인제빙어축제, 연천구석기축제, 대구약령시축제 남원춘향제 한산모시문화제 정월대보름들불축제(북제주)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광주김치대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풍기인삼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축제별 사업비 5천만원 지원
예비축제 (25개)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합천팔만대장경축제, 문경찾사발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광안리어방축제(부산), 화천산천어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전국음성품바축제, 태백산눈꽃축제 보성다향제	강화고인돌문화축제, 평창효석문화제, 봉화춘양목송이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무안백련대축제, 원주한지문화제, 외고산옹기축제(울산), 과주장단콩축제, 고창모양성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한산대첩축제, 괴산청결고추축제, 생거진천화랑축제, 한밭선비축제(대전), 천안홍타령축제	-



- 문화관광부 선정 2006년도 문화관광축제 총52개 가운데 제주지역의 축제는 지정축제는 없이 정월대보름들불축제가 유망축제로, 서귀포칠십리축제가 예비축제로 선정되는데 그쳐 관광선진지역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악화되는 결과를 보임.

<표 3-4> 2006년도 문화관광축제 시도별 선정현황

시도	등급	최우수	우수	유망	예비
서울특별시					하이서울페스티벌
부산광역시			부산자갈치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대구광역시				대구약령시축제	
인천광역시					강화고인돌축제
광주광역시				광주김치대축제	
대전광역시					한밭선비축제(신규)
울산광역시					외고산옹기축제
경기도				이천쌀문화축제 연천구석기축제	과주장단콩축제
강원도			춘천국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인제빙어축제	화천산천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원주한지문화제 태백산눈꽃축제(신규)
충청북도			충주세계무술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전국음성품바축제 생거진천화랑축제(신규) 괴산청결고추축제(신규)
충청남도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천안홍타령축제(신규)
전라북도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남원춘향제	고창모양성제
전라남도	강진청자문화제	함평나비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보성다향제 담양대나무축제 무안백련대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신규)
경상북도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경주한국의술과떡잔치 풍기인삼축제	문경차사발축제 봉화춘양목송이축제
경상남도	진주남강유등축제	하동야생차문화 축제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합천팔만대장경축제 한산대첩축제(신규)
제주도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계		5	9	13	25

## 나. 제주지역 축제 현황

### 1) 2004년도 제주지역 축제 현황

- 2004년 현재 제주도의 지역축제는 총 47개로 시군별로 보면 제주도 7개, 제주시 9개, 서귀포시 18개, 북제주군 5개, 남제주군 8개 등임.
- 축제의 유형별로는 관광축제 19개, 문화축제 14개, 레저축제 8개, 특산물축제 5개, 과학축제 1개 등이 개최되었음.

<표 3-5>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 현황

축 제 명	일 시	주최/주관	행사내용	비고
신년일출제	1. 1	서귀포시 /서귀포문화원	•기원제, 축시낭송 •예술단축하공연	관광축제
함덕 서우봉 일출제	1. 1	함덕마을회 /연합청년회	•일출제 •전통민속놀이	관광축제
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5회)	1. 4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겨울바다 수영체험	레저축제
탐라국 입춘굿놀이	2.3 -2.4	제주시 /전승보존회	•거리굿, 전상놀이, 축하공연, 세경놀이, 입춘탈굿놀이, 입춘굿	문화축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1.30 -1.31	북제주군	•오름불놀이, 불꽃놀이 •말싸움놀이, 민속공연	관광축제
세계일보서귀포 국제마라톤대회	2.22	서귀포시 /세계일보	•42km,21km,10km,5km 구간별	레저축제
서귀포칠십리 국제걷기축제(6회)	3.27 -3.28	서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10,20,30km 걷기대회	레저축제
제주왕벚꽃 잔치	3.27 -3.28	제주시 /KBS제주방송	•왕벚꽃건강걷기대회 •향토음식경연대회 •축하공연	관광축제
노인성축제 (2회)	4. 8	서귀포문화원	•노인성 별 보기 •별자리 보기 •별자리 강좌 등	관광축제
제주유채꽃잔치 (22회)	4.17 -4.18	남제주군 /KBS제주방송	•전국노래자랑 •유채꽃길건강걷기대회 •대록산 등반대회 등	관광축제

<계 속>

축 제 명	일 시	주최/주관	행사내용	비고
고사리 꺾기대회 (10회)	4.25	남제주군 /고사리꺾기대회 축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사리 꺾기 체험</li> <li>고사리요리경연 등</li> </ul>	관광축제
강정천올림 은어축제(3회)	5월	축제추진위원회 /강정어촌계, 마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어 낚시체험,</li> <li>전통은어잡기 시연 등</li> </ul>	관광축제
용연야밤풍류재현 축제(5회)	5월	제주시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상음악회, 시조경창,</li> <li>한시백일장 등</li> </ul>	문화축제
서귀포칠선녀 축제(10회)	5월	칠선녀축제위원회 /중문청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칠선녀제,</li> <li>향토야시장 등 (작수년 축제, 홀수년 제봉행)</li> </ul>	관광축제
제주도새기축제 (2회)	5월	제주양돈축협/ JBS제주양돈 파워이벤트/제주대 농업생명과학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새기 월드컵,</li> <li>제주도감대회, 풍물놀이 어린이 사생대회</li> </ul>	관광축제
철쭉제(38회)	5.23	제주산악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쭉제례</li> <li>다함께 자연보호</li> </ul>	관광축제
제주마라톤축제 (9회)	5.30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2km,21km,10km</li> <li>김치만들기 체험 등</li> </ul>	레저축제
아름마을축제	5~6월 경	아름마을축제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종닭먹기</li> <li>도종닭싸움대회</li> <li>풍물놀이</li> </ul>	관광축제
제주레저 스포츠축제(5회)	7~8월	제주시 /조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스터즈수영대회</li> <li>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축제 등</li> </ul>	레저축제
보목일품 자리돔축제(5회)	6월	추진위원회 /보목어촌계, 마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목해저탐방</li> <li>자리돔 체험 마당 등</li> </ul>	특산물축제
한여름밤의 해변축제(9회)	7.20 -8.9	제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무대장르 마라톤 공연</li> </ul>	문화축제
한여름 예래 논짓물 해변축제(4회)	7.30 -8.1	예래동 주민자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맨손으로 낚시잡기 체험</li> <li>초청공연팀 공연</li> </ul>	관광축제
중문해수욕장 이벤트 축제	8월	서귀포시 /제주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예인 초청 공연</li> </ul>	문화축제
삼양검은모래 축제(3회)	8월	삼양동 연합청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변노래자랑</li> <li>모래성 쌓기 등</li> </ul>	관광축제
표선백사 대축제(제9회)	8월 초 (2일간)	표선마을회 /표선청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변 레크레이션</li> <li>해변영화상영 등</li> </ul>	관광축제

<계 속>

축 제 명	일 시	주최/주관	행사내용	비고
한여름 해변축제	8월 초	한림청년회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어울림마당</li> <li>• 해변가요제</li> </ul>	문화축제
2004 서귀포여름 음악축제(5회)	8.2 -8.11	한국음협 서귀포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창, 중창, 댄스공연, 재즈밴드 공연 등</li> </ul>	문화축제
함덕바당 모살축제	8.10	함덕마을회 /연합청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댄스공연, 바다 콘서트 등</li> </ul>	문화축제
제주국제 관악제(8회)	8.12 -8.20	제주시 /조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콩쿨, 순회연주</li> <li>• 세계 관악팀 연주</li> </ul>	문화축제
아시아·태평양 관악제(13회)	8.14 -8.19	제주시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관악단순회연주회</li> <li>• 관악관련학술세미나 등</li> </ul>	문화축제
법환수산물품 한치큰잔치(5회)	8월	추진위원회 /법환어촌계, 마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치 맛자랑 경연</li> <li>• 최영장군배 재현</li> </ul>	특산물 축제
도두동오래물, 수산물대축제 (3회)	8월	도두동 연합청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우경연, 축하공연 맛자랑 경연 등</li> </ul>	특산물 축제
서귀포 별의 축제(2회)	9. 5	서귀포시 /한국천문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자리 보기, 우주쇼 과학 실험 등</li> </ul>	과학축제
이중섭예술제 (7회)	9월	서귀포시 /예총서귀포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미술, 예술공연 풍물놀이</li> </ul>	문화축제
서귀포 칠십리축제(10회)	9월	서귀포시 /서귀포시 축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영장군목호토벌 전승재현</li> <li>• 바다체험, 민속체험</li> </ul>	관광축제
서귀포시장배 바다핀수영대회 (4회)	9.27	서귀포시 /국민생활체육 제주도스킨 스쿠버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거리 바다 핀 수영 대회 (1km, 3km)</li> </ul>	레저축제
울트라마라톤대회 (3회)	9월	스포츠서울 /대회조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km,100km마라톤</li> </ul>	레저축제
서귀포시장배 바다낚시대회 (2회)	9.28	서귀포시 /서귀포낚시 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갯바위 낚시대회</li> </ul>	레저축제
추사문화 예술제(3회)	10월초순 (2일간)	남제주군 /문화예술보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사선생 귀양행차</li> <li>• 서예전, 추사탄신제향</li> </ul>	문화축제
덕수리전통 민속축제(13회)	10월초순	덕수리마을회 /민속보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앗돌 굴리는 노래</li> <li>• 불무공예 재현 등</li> </ul>	문화축제

<계 속>

축 제 명	일 시	주최/주관	행사내용	비고
정의골 민속 한마당축제 (11회)	10월초순 (1일)	성읍리마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민속시연</li> <li>• 민속 체험장 운영</li> </ul>	문화축제
탐라문화제(43회)	10월 첫째주	제주도 /예총제주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민속예술경연</li> <li>• 전통민속재현</li> <li>• 각종 민속체험 운영</li> </ul>	문화축제
제주마축제(2회)	10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 제주MBC,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상무예, 로데오경기</li> <li>• 말사랑싸움대회</li> </ul>	관광축제
제주역새꽃 축제(11회)	10월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새꽃길 트레킹</li> <li>• 그림 그리기 대회</li> <li>• 민속공연 등</li> </ul>	관광축제
최남단모슬포 방어축제(4회)	11월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상낚시대회</li> <li>• 방어 손으로 잡기</li> <li>• 해양체험 등</li> </ul>	특산물 축제
제주감귤축제 (24회)	11월	제주도/ 제주감귤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아가씨선발대회</li> <li>• 감귤품평회 등</li> </ul>	특산물 축제
성산일출제 (12회)	12. 31 - 1. 1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출제, 전통민속놀이 치어방류 등</li> </ul>	관광축제

## 2) 2005년도 제주지역 축제 현황

- 2005년 기준 제주도의 지역축제는 총 45개로 시군별로 보면 제주도 3개, 제주시 10개, 서귀포시 13개, 북제주군 5개, 남제주군 9개, 기타 5개 등임.
- 축제의 유형별로는 관광축제 17개, 문화축제 13개, 레저축제 9개, 특산물축제 6개 등이 개최되었음.
- 특히 축제의 명칭까지도 유사한 축제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일출제는 4개가 거의 동시에 행해지고 있고, 해변축제 4개, 제주마 관련 2개, 모래 관련 축제 2개 등이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행해지고 있음.

<표 3-6> 2005년도 제주지역 축제 현황

축 제 명	일 시	주최/주관	행사내용	비고
신년일출제	1. 1	서귀포시 /서귀포문화원	•기원제, 축시낭송 •예술단축하공연	관광축제
함덕 서우봉일출제	1. 1	함덕마을회 /연합청년회	•일출제 •전통민속놀이	관광축제
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6회)	1. 2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겨울바다 수영체험	레저축제
탐라국 입춘굿놀이	2.3 -2.4	제주시 /전승보존회	•거리굿, 전상놀이, 축하공연, 세경놀이, 입춘탈굿놀이, 입춘굿	문화축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2.17 -2.19	북제주군	•오름불농기, 불꽃놀이 •말싸움놀이, 민속공연	관광축제
세계일보서귀포 국제마라톤대회	2.27	서귀포시 /세계일보	•42km,21km,10km,5km 구간별	레저축제
제주왕벚꽃잔치	3.25 -3.27	제주시 /KBS제주방송	•왕벚꽃건강걷기대회 •향토음식경연대회 •축하공연	관광축제
서귀포칠십리 국제걷기축제(7회)	3.26 -3.27	서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10,20,30km 걷기대회	레저축제
제주유채꽃잔치 (22회)	4.9 -4.10	남제주군 /KBS제주방송	•전국노래자랑 •유채꽃길건강걷기대회 •대륙산 등반대회 등	관광축제
고사리 꺾기대회 (11회)	4.24	남제주군 /고사리꺾기대회 축제위원회	•고사리 꺾기 체험 •고사리요리경연 등	관광축제
서귀포칠선녀 축제(11회)	5.5	칠선녀축제위원회 /중문청년회	•칠선녀제, 향토야시장 등 (적수년-축제, 홀수년-제봉행)	관광축제
제주도새기축제 (3회)	5.14-15	제주도농축협/ KBS제주방송 파워이벤트/제주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도새기 월드컵, 제주도감대회, 풍물놀이 어린이 사생대회	관광축제
용연야밤풍류재현 축제(6회)	5.22	제주시 /추진위원회	•선상음악회, 시조경창, 한시백일장 등	문화축제
철쭉제(39회)	5.29	제주산악연맹	•철쭉제레 다함께 자연보호	관광축제
강정천올림 은어축제(4회)	6.3-5	축제추진위원회 /강정어촌계, 마을회	•은어 낚시체험, 전통은어잡기 시연 등	관광축제

<계 속>

축 제 명	일 시	주최/주관	행사내용	비고
제주마라톤축제 (10회)	6.5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km,21km,10km</li> <li>• 김치만들기 체험 등</li> </ul>	레저축제
보목일품 자리돔축제(6회)	6.10-12	추진위원회 /보목어촌계, 마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목해저탐방</li> <li>• 자리돔 체험 마당 등</li> </ul>	특산물축제
한여름밤의 경마페스티벌	7.16-8.14	제주마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조명</li> <li>• 헤나체험</li> </ul>	레저축제
제주레저 스포츠축제(6회)	7.17-9.25	제주시 /조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터즈수영대회</li> <li>•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축제 등</li> </ul>	레저축제
한여름밤의 해변축제(10회)	7.20 -8.9	제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무대장르 마라톤 공연</li> </ul>	문화축제
중문해변영화제	7.20 -8.9	제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외해변영화상영</li> </ul>	문화축제
표선백사대축제 (10회)	7.29 -7.31	표선마을회 /표선청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변레크레이션</li> </ul>	관광축제
한여름 예래 논짓물 해변축제(5회)	7.30 -8.1	예래동 주민자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맨손으로 낚시잡기 낚시체험</li> <li>• 초청공연팀 공연</li> </ul>	관광축제
한여름해변축제	8.1	북제주군 /한림청년회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예인 초청 공연</li> </ul>	문화축제
법환수산물품 한치큰잔치(6회)	8.1-30	추진위원회 /법환어촌계, 마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치 맛자랑 경연</li> <li>• 최영장군배 재현</li> </ul>	특산물 축제
함덕바당 모살축제	8.2	함덕마을회 /연합청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댄스공연, 바다 콘서트 등</li> </ul>	문화축제
삼양검은모래 축제(4회)	8.5-6	삼양동 연합청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변노래자랑</li> <li>• 모래성 쌓기 등</li> </ul>	관광축제
제주국제 관악제(9회)	8.12 -8.20	제주시 /조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콩쿨, 순회연주</li> <li>• 세계 관악팀 연주</li> </ul>	문화축제
수월노을축제	8.20	제주시 /도두동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월영산제</li> <li>• 길트기사물놀이 등</li> </ul>	문화축제

<계 속>

축 제 명	일 시	주최/주관	행사내용	비고
도두동오래물, 수산물대축제 (4회)	8.20-22	도두동 연합청년회	•태우경연, 축하공연 •맛자랑 경연 등	특산물 축제
이중섭예술제	9.16	서귀포시 /예총서귀포지부	•설치미술 •예술공연 등	문화축제
제주마축제	9.23 -9.25	제주마생산자협회	•마상무예 •로데오경기 등	레저축제
서귀포 칠십리축제(11회)	9.28-10.3	서귀포시 /서귀포시 축제위원회	•최영장군목호토벌 진승재현 •바다체험, 민속체험	관광축제
탐라문화제(44회)	10.1-7	제주도 /예총제주지회	•제주민속예술경연 •전통민속재현 •각종 민속체험 운영	문화축제
정의골민속 한마당축제(12회)	10.2	성읍리마을회 /민속보존회	•전통민속재현 •각종 민속체험 운영	문화축제
덕수리전통 민속축제(14회)	10.2	덕수리마을회 /민속보존회	•전통민속재현 •각종 민속체험 운영	문화축제
스포츠서울 서귀포마라톤대회	10.2	스포츠서울 /서귀포시	•5km,10km, 하프, 풀마라톤	레저축제
대정고을추사문화 예술제(4회)	10.2-3	남제주군 /문화예술보존회	•추사선생 귀양행차 •서예전, 추사탄신제향	문화축제
제주역새꽃 축제(12회)	10.8-9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	•역새꽃길 트레킹 •그림 그리기 대회 •민속공연 등	관광축제
제주감귤축제	11.4-13	KBS제주총국 /제주감협	•건기대회 •민속공연 등	특산물 축제
최남단모슬포 방어축제(5회)	11.11-13	추진위원회	•선상낚시대회 •방어 손으로 잡기 •해양체험 등	특산물 축제
삼성하우젠배 서귀포겨울마라톤/ 인라인축제	12.18	서귀포시/ 국제자유도시포럼	•마라톤 코스별 •인라인	레저축제
최남단감귤농장 체험축제(3회)	12.23-18	남제주군/ 제주MBC	•귤따기, 운반하기 •보물찾기 등	특산물 축제
성산일출제	12.31-1.1	성산일출제축제 위원회/집행위원회	•일출관악제 •새해기원제 등	관광축제
새해월랑봉일출제	12. 31 -1. 1	세화리 /세화리부녀회	•불글씨점화식 •새해폭죽쇼 등	관광축제

자 료 : <http://cyber.jeju.go.kr>



### 3) 지방자치단체별 축제 현황

- 조사된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총 45개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축제의 분포는 제주시 28.8%인 13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귀포시로 22.2%인 10개의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남제주군이 20.0%인 9개, 북제주군 및 기타가 11.1%인 5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표 3-7>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축제 분석

축제 주최별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제 주 도	3	6.6%	6.6%
제 주 시	13	28.8%	35.4%
서귀포시	10	22.2%	57.6%
북제주군	5	11.1%	68.7%
남제주군	9	20.0%	88.7%
기 타	5	11.1%	100.00%
총 계	45	100.00%	

<표 3-8> 축제유형별 지역축제 분석

축제 유형별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관광축제	17	37.7%	37.7%
문화축제	13	28.8%	66.5%
레저축제	9	20.0%	86.5%
특산물축제	6	13.3%	100.0%
총 계	45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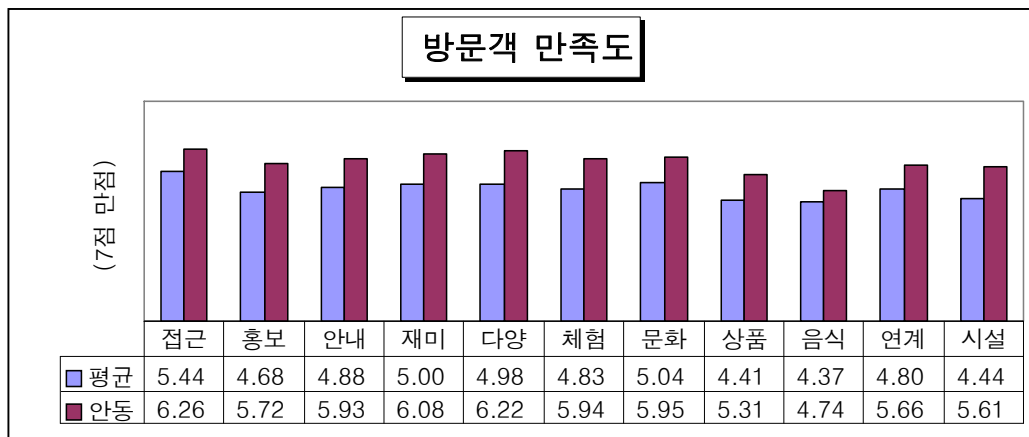
## 다. 문화관광부 선정 최우수축제 분석

- 2004년도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 총37개중 축제관련 전문가 및 평가위원들로부터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수준높은 프로그램,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 각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강진청자문화제', '김제지평선축제' 등이었음.
- 이들 최우수 축제 및 제주지역 축제 가운데 유일하게 예비축제로 선정되었던 '서귀포칠십리축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sup>26)</sup>

### 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가) 설문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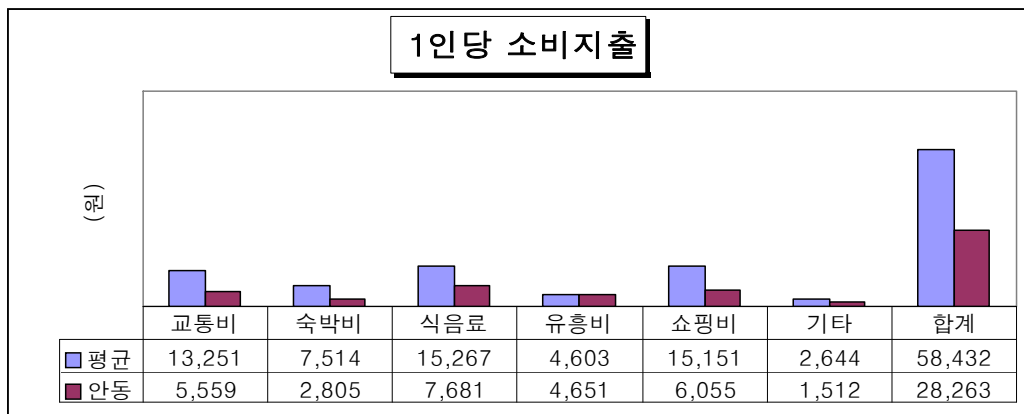
- 만족도 부문에서 2002년과 2003년에 이어서 2004년에도 전국 최고의 만족도 점수를 기록하였음. 전체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높았을 뿐만 아니라 여타 축제의 평균값에 비해서도 무려 0.96점 높게 나타났음.



<그림 3-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방문객 만족도

26) 문화관광부, 200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5에서 인용.

- 소비지출 부문에서는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만족도를 비롯듯이 당 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1인당 소비지출금액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모든 축제의 주요 소득원인 식음료비, 쇼핑비, 숙박비 등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당 축제의 주최측이 지금까지 축제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면, 이후로는 축제의 경제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3-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1인당 소비지출

## (나) 부문별 평가

### (1) 홍보 및 안내

#### □ 잘된 점

- 축제 현장을 안내하는 안내원의 지역주민 활용도가 높은 편이며, 행사장내 안내원의 친절도가 높음.
- 행사와 관련된 공식 홍보 인쇄물 외에 행사 당일의 공연일정(“오늘의 공연 일정표”)을 별도로 복사하여 방문객에게 배포함으로써 방문 당일의 일정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축제로 올해에도 중앙 매체 및 지역매체에 충분한 홍보와 퍼블리시티가 이루어져서 많은 외래 방문객이 행사개최에 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이용매체도 다양한 편이었음.

□ 개선할 점

-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역고유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여도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안내나 안내서가 없어서 충분한 이해가 곤란하였음.
- 고속도로 IC에서는 축제안내서를 배포하고 있었으나, 안동시 진입후 해당 축제의 행사장소를 안내하는 안내판 및 배너 등이 부족하거나 표현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개별 방문객에 대한 행사장 유도가 미흡했음.
- 행사장 안내원들의 축제에 대한 자긍심은 높은 것으로 보였으나, 충분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 행사정보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행사진행전반

□ 잘된 점

- 먹거리 장터를 행사장 뒤편에 일렬로 배치하여 다른 축제와 달리 깨끗하게 정리된 느낌을 갖을 수 있었으며, 이를 다시 전문식당과 포장마차의 메뉴 별로 구분 배치하여 메뉴의 중복을 피하고, 방문객에게 식당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음.
- 방문객의 행사장 동선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분야별(공연, 체험, 전시 등)로 배치함으로써 이동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행사장에 입장하면, 전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모든 장소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함.

□ 개선할 점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다른 지역축제와 달리 매년 축제의 주제를 별도로 선정하고 있어 금년에는 ‘각시의 꿈(Gaksi’s dream)’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주제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부족했음.
- 주 행사장에 모든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하회마을을 축제와 연계시키긴 하였으나, 일부 공연을 위한 행사장이라는 느낌이 들 뿐 축제와의 연계성이 높아보이지 않았음.
- 상업적 스폰서십(이동통신사)에 의한 휴식시설 및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한 휴식시설이 있었으나 제한적이었음.

(3) 축제 프로그램

□ 잘된 점

- 주행사장이 전시형부스 형태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으며, 전통문화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 구성, 안동의 지역문화 및 전통탈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 외래 방문객과 어린이에게 유용한 구성으로 보임.
- 구성된 체험·전시·공연 프로그램 대부분이 축제 주제와의 적합성이 높고, 지역문화와의 연관성도 높은 편이며, 다른 지역축제와의 차별성도 비교적 높은 편임.

□ 개선할 점

-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스에 따라 때때로 민속생활의 소극적인 시연, 체험프로그램의 형식적인 운영 등이 나타났으며,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참가를 독려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결여된 모습이 보여졌음.

- 행사장이 비교적 청결하고, 통제가 용이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주요 프로그램의 행사시작전 이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없어 참관객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고 있지 못했음.
- 성황제와 굿은 방문객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협소한 곳에서 이루어져 관람객들 대부분이 관람의 불편을 호소하였으며, 공간배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4) 쇼핑 및 음식

##### □ 잘된 점

- 비교적 다른 축제와 구분되는 지역특산품(안동간고등어, 안동쪽물비누, 참기름, 안동소주, 안동사과, 안동참마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특산품 판매는 한정된 공간에서 별도로 운영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였고, 메인행사장과의 접근성이 좋아 방문객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음식 판매구역을 제한하여 비교적 깨끗하게 정돈되었으며, 식당공간을 크게 전문식당과 포장마차로 구분하고, 각각 동일한 색의 배너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깨끗하고 통일된 느낌을 갖게 하였음.

##### □ 개선할 점

- 지역 특산품은 다양한 종류가 판매되고 있었으나, 탈춤축제와 관련된 기념품이 많지 않았음.
- 행사장내 외국부스에서 축제의 주제는 물론 설치된 부스의 배너와도 관련성이 없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축제추진위로부터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오히려 축제를 일반상품의 판매에 이용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음.
- 음식을 판매하는 먹거리장터는 행사장 뒤편으로 비교적 격리되어 정돈되었으나, 전문식당과 포장마차 형태의 음식점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어 지역색을 살린 향토음식 메뉴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운영 및 주민참여

##### □ 잘된 점

- 축제에 운영요원으로 참여한 지역주민이 많았으며, 이를 운영본부에서 파악하여 수급조절을 하고 있어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높았음. 또한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축제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 보였음.
- 행사일정이 별 무리없이 지켜지고 있었으며, 축제추진위원회와 관리감독기관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 □ 개선할 점

- 메인 행사장의 공연프로그램이 예년과 유사하여 과거에 비해 공연이 발전된 것이 없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음. 따라서 향후 우수한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프로그램 개발과 방문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하회마을의 경우 주행사장이 아니기 때문인지 공연준비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 공연시작 시간 이후에 공연을 준비하거나,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 관객용 의자가 도착하는 등 다소 준비에 허술한 점을 보이기도 함.

#### (6)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 □ 잘된 점

- 안내데스크에 충분한 양의 외국인용 안내서(영어, 일어)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자원봉사 통역안내원이 배치되어 행사장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의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른 지역축제와 달리 축제추진위원회에 상근직원으로 고용된 일본인(일어), 대만인(중국어) 및 서구인(영어)의 배치로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방문객의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들의 안내데스크 운영으로 축제추진위의 축제운영이 책임감 있게 수행될 것으로 보임.

□ 개선할 점

- 통역안내원이 언어별로 배치되어 있으나, 영어통역안내원의 수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많은 외국인 관람객수에 비해 통역안내원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하회마을의 경우 축제관련 외국어 홍보물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았으며, 외국인방문객을 위한 연계 홍보 및 축제일정의 안내 등이 미흡함.
- 행사장에 외국인을 위한 안내표지판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외국인의 경우 간단한 정보라도 안내데스크를 찾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7) 숙박 및 연계관광

□ 잘된 점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봉화군의 2004봉화송이축제 및 연주시의 2004영주풍기인삼축제와 행사시기를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외래 관광객의 유치와 홍보도 3개 지역이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는 지역활성화라는 축제 개최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축제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시도로 보여짐.

□ 개선할 점

- 도산서원과 하회마을을 연계시키는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셔틀운영



의 홍보부족으로 이를 방문객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보도 충분치 않아 좋은 관광자원을 지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다) 축제의 사회·문화·환경적 영향

### (1) 사회적 영향

- 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지역주민의 결속 및 지역문화를 이용한 외래방문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하여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한국의 지역축제로 할 수 있음.
- 축제추진위원회가 용역을 의뢰하여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축제 개최로 인한 경제유발효과는 약 223억원으로 안동시 인구 18만명 기준 1인당 112,000원 정도의 부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지역주민의 결속과 지역문화의 홍보외에도 경제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지역축제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되는 향토축제의 관광상품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세계적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사회적 유대형성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축제이벤트로 성장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2) 문화적 영향

- 우수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다른 축제에 비해 문화적 정체성 측면에서 경쟁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전통문화의 승계를 위해 축제 프로그램의 핵심인 탈춤을 비롯하여 문화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락공연, 써커스 등 개최지역의 전통문화와 다소 거리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전통문화의 승계와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전통 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을 유지·발전시켜 가면서 체험성격이 강한 전통 프로그램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 환경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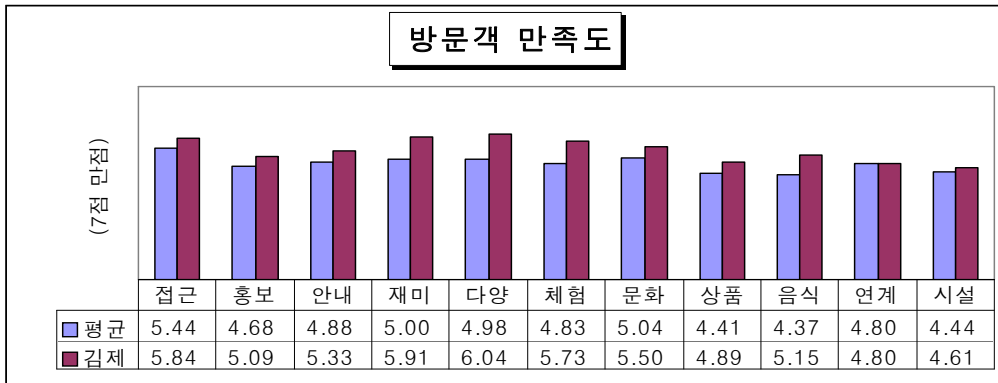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다행히 주제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문화적 전달을 통해 대량의 방문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환경보존형 지역축제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축제 행사장도 상설 구조물을 확보하고 있어 교통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관심이 될 수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 축제추진위원회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재활용폐기물, 특정폐기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소지역을 제 1~4구역으로 행사장과 도로 및 주차장을 분리하여 구분하고, 쓰레기 보관용기의 설치,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사용, 음식물쓰레기의 최소화, 쓰레기 반출의 통제 등 비교적 엄격한 운영규정을 두고 있어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으나, 행사장내 쓰레기통의 설치, 방문객에 대한 환경홍보 등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적으로 환경관리가 축제운영의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만큼 더욱 치밀한 계획과 관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 김제지평선축제

### (가) 설문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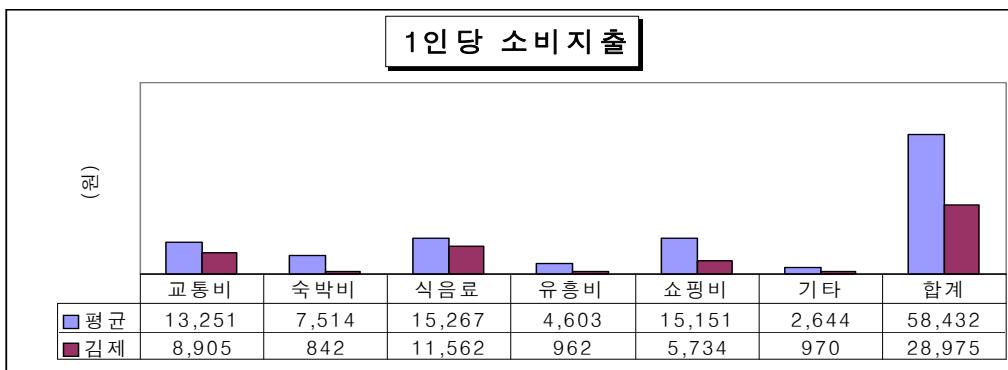
- 만족도 부문에서 본 축제는 마야호로 최우수축제로 선정될 만큼 매년 눈부신 성장을 해왔음. 무엇보다 농경문화를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

로 뛰어넘으로써 방문객에게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하였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그림 3-3> 김제지평선축제 방문객 만족도

- 소비지출 부문에서 본 축제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외화 내빈형 축제에 속함. 수많은 방문객들이 느끼는 우호적인 감정과 높은 만족도를 그들의 소비지출로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직은 요원한 실정임. 김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을 소재로 다양한 음식상품을 개발하거나 부피가 크고 무거운 농산물을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그림 3-4> 김제지평선축제 1인당 소비지출

## (나) 부문별 평가

### (1) 홍보 및 안내

#### □ 잘된 점

-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축제 홍보 안내물을 배포하고 있어 승용차로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용이하게 행사장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속도로 IC에서 행사장까지의 안내 표지판이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 행사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코스모스 길로 조성되어 있어 축제 방문객에게 매우 아름다운 들녘의 풍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충분하였음.
- 행사장의 셔틀버스가 매 20분 단위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셔틀 운영에 대한 버스운영 시간표가 배포되어 이용 편리성을 증진시키고 있었음.
- 행사장 출입구에 안내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방문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며,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서가 적절히 배포되고 있었고, 행사 안내원이 곳곳에 배치되어 방문객이 쉽게 필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음.

#### □ 개선할 점

- 축제를 홍보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이 축제의 사전 홍보 도구로 사용될 만큼 충분히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음.
- 축제 행사장 접근 도로가 너무 좁아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었으며, 다양하지 않은 접근방법 등 물리적인 문제점으로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졌음.
- 다양한 단위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방문객이 농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단위행사 해설체계가 미흡했던 점이 아쉬웠음.

## (2) 행사진행전반

### □ 잘된 점

- 각 프로그램별로 적절한 행사장을 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동선 구성도 효율적이어서 축제 행사장내 이동 방향과 프로그램 참관이 용이하였음.
- 축제 행사장 주변이 논으로 둘러싸여 농경문화 관련축제로서 축제 주제와의 연관성이 높았고, 행사장의 크기도 적절하였으며, 테마연못과 농촌 들녘 우마차 여행 등의 프로그램별 시설물은 지역의 청정성을 부각시키려는 의지를 볼 수 있었음.

### □ 개선할 점

- 축제 행사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불편과 혼잡을 초래하였으며,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안내원조차 차량의 효율적 주차유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방문객이 편도 1차선인 행사장 진입로를 중심으로 차량을 주차하고 행사장까지 차도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으며, 이는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행사장내 화장실은 공간배치와 청결성에 있어 양호하였으나, 여성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긴 여성 대기행렬이 발생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보여졌음.

## (3) 축제 프로그램

### □ 잘된 점

-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농경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어 축제 주제와 관련되어

프로그램에 일관성이 있으며, 체험과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고, 각 프로그램이 비교적 알차고 재미있는 편임.

- 체험 프로그램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 농경문화의 경험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 체험 프로그램 대부분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벼농사 체험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관광객의 참여 호응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또한 프로그램 체험후 방문록에 소감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마케팅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 개선할 점

- 농경문화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축제제전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농경문화축제'와는 일관성이 있어 보이나, 실제 축제명인 '지평선'이라는 이름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또는 대표 체험 프로그램은 찾기 어려웠음.
- 프로그램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일반적 농경문화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독창적이거나 독특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편이며,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 쇼핑 및 음식

#### □ 잘된 점

- 읍면별로 식당을 임대하여 부녀회에서 먹거리를 운영함으로써 상업적이라는 이미지가 적고, 농촌의 푸근한 인심을 느낄 수 있으며, 음식의 판매가격을 운영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여 근원적으로 바가지 상흔으로 인한 방문객의 불쾌한 경험을 없앨 수 있도록 하였음.
- 지평선쌀, 올벼쌀, 동굴젓갈, 백련차 등 지역 특산품과 캐릭터 상품을 적정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음.

며, 외지상인과 지역민의 활동영역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음.

□ 개선할 점

- 노점상인 단속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상인의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축제 이미지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었으며,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장소가 비포장으로 인한 먼지, 명확치 않은 주방공간, 근접되어 위치한 공중화장실 등 비교적 비위생적이므로 이에 대한 위생환경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산품 및 캐릭터 상품에 대한 구매시점 광고 부족과 사전 홍보부족으로 인해 방문객의 구매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 방문객의 지출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운영 및 주민참여

□ 잘된 점

- 지역주민이 김제일원과 행사장 진입로 및 행사장내 허수아비를 설치·전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자발적 참여와 행사장의 자원봉사, 주차관리, 음료봉사 등의 자율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음.
- 전국노래자랑과 같이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떡거리장터 등에서의 지역주민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고, 가족중심의 지역주민 방문객이 많았음.

□ 개선할 점

- 축제행사 방문객이 대부분이 지역내 학생단체와 노년층 주민에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지역문화의 전파와 축제를 통한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해 외래 방문객을 위한 홍보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각 프로그램별로 지역의 자원봉사자와 행사장내 운영요원을 좀 더 적절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지역문화를 상세히 설명하여 방문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6)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 □ 잘된 점

- 축제 행사장 방문객을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표기된 홍보물이 행사장 입구에 비치되어 있었으며, 행사장내 이정표도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 보였음.

### □ 개선할 점

- 외국어로 표기된 안내 홍보물의 내용이 빈약해 보였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어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전문 통역 안내원을 식별할 수 없었음. 또한 외국인 유치도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한국농경문화 바로알기 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를 별도로 운영하기보다는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이 내국인 방문객과 함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별 프로그램의 외국인 안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7) 숙박 및 연계관광

### □ 잘된 점

- 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지평선 들녘열차'를 운영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연계관광의 편의를 제공하며, 행사장내 안내서에 역내 관광안내를 표기하는 등 방문객의 지역내 관광활동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

- 또한 축제 자체가 김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벽골제에서 개최되어 방문객으로 하여금 김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음.

#### □ 개선할 점

- 행사장에서 관광지로 연결되는 교통편의 안내가 부족하였고, 유명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는 내장산이나 고창의 선운사와 같은 인근지역과의 연계정보를 쉽게 접하기 어려웠음.
- 관광객의 숙박을 유도하려는 홍보와 안내 등의 노력을 찾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김제 지평선축제는 축제만을 찾는 당일 방문객 중심으로 홍보되는 것으로 보였음.

### (다) 축제의 사회·문화·환경적 영향

#### (1) 사회적 영향

- 김제 지평선축제는 축제이념으로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는 구심점으로서의 축제를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축제의 이념처럼 지평선축제는 지역주민의 단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이들의 자원봉사를 유도하여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참여 만족도를 높여 왔다는 측면에서 축제개최의 긍정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음.
- 지평선축제가 지역주민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경제수입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축제 개최를 통해 정체성이 확립된 지역 이미지를 확보하고, 지역 특산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지역주민의 화합이 경제적 수입 증가라는 가시적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열의도 감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김제 지평선축제는 외래 방문객에게 지역을 홍보하고, 독특한 지역 이미지를 확립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를 외부에 알리는 관광축제의 기회로 이용되기보다는 아직 지역주민의 풍성한 잔치로서의 축제로 보일 수도 있음.

## (2) 문화적 영향

- 김제 지평선축제는 농경문화를 주제로 축제를 통해 방문객에게 전통문화, 민속놀이, 도작문화 등의 농촌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의 향수를 제공하는 문화관광축제임. 이를 위해 방문객에게 농경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게 하며, 전통 민속놀이 문화에 대해 방문객에게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음. 이는 축제의 주제선정에 있어 농경문화가 중심인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축제의 개념(concept)설정에 있어 '체험적 문화축제', '쌀 문화축제', '문화관광축제', '생활문화축제' 및 '역사문화축제'라는 컨셉을 기초로 하고 있음. 이러한 컨셉은 지역내 거주민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 보다는 외래 방문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지역의 문화(체험, 쌀, 문화, 생활, 역사)와 관련된 것들임.
- 그러나 김제 지평선축제는 '김제'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외래관광객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있어 그리 성숙되어 있거나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3) 환경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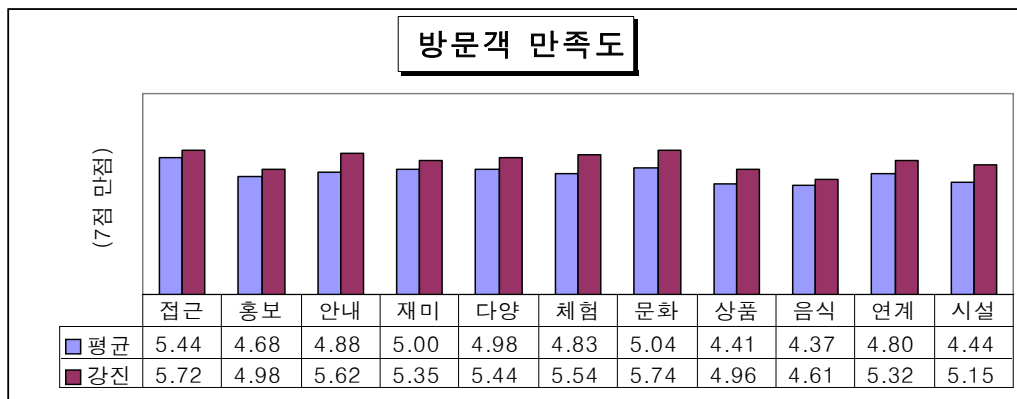
- 김제 지평선축제는 '농경문화의 체험'이라는 주제 자체가 친환경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축제임. 이러한 주제는 우리나라 도작문화의 오랜 전통으로 인해 벼농사의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김제 지평선축제는 이러한 축제주제를 바탕으로 생태보호의 개념을 알릴 수 있는 새끼꼬기, 가마니짜기, 메뚜기잡기 체험프로그램, 물고기잡기 프로그램, 유기농 농산물 전시 등과 관련된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축제를 찾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음. 이는 김제 지평선축제가 농경문화체험이라는 컨셉을 지니고 있는 한향후에도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집중해야 할 교육적 요소로 보임.

### 3) 강진청자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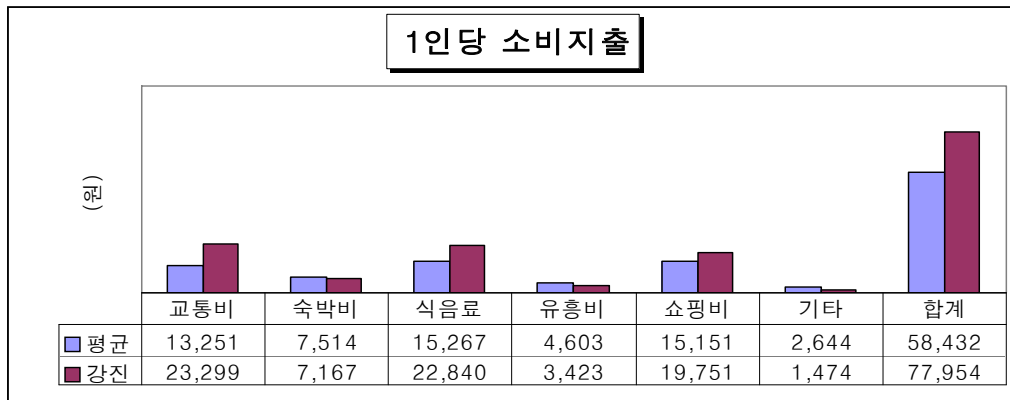
#### (가) 설문조사 분석

- 만족도 부문에서 본 축제는 2002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될 정도로 모든 측정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음.



<그림 3-5> 강진청자문화제 방문객 만족도

- 소비지출 부문에서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규모 역시 다른 축제에 비해 우수한 편에 속했음. 그러나 보령머드축제처럼 여름철 피서객을 겨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숙박비와 유흥비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앞으로 해수욕장과 연계한 프로그램 또는 야간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방문객들의 소비지출 기회를 늘리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그림 3-6> 강진청자문화제 1인당 소비지출

## (나) 부문별 평가

### (1) 홍보 및 안내

#### □ 잘된 점

- 강진 청자문화제는 2003년 문화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선정됨으로써 중앙언론에 많이 소개되어 이번 축제참가자들과의 면담결과 사전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음. 또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휴가철 관광지로 강진 및 청자문화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었음.
- 강진읍내에서 대구면의 축제장으로 가는 가도에는 수 많은 플랑카드가 걸려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일본어 및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된 플랑카드가 많아 강진청자문화제의 국제화를 실감케 하였음. 또한, 토속어로 된 플랑카드(위메 저것이 진짜 비행기 맞다냐? 사진이나 한번 찍고 가세! 등)는 관광객들에게 애향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음.

□ 개선할 점

- 축제 홈페이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제공원이 되고 있음. 따라서 국제화를 지향하는 강진청자문화제가 축제홈페이지의 구축, 관리,업그레이드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

(2) 행사진행 전반

□ 잘된 점

- 축제기간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운 여름이었므로 관광객들이 야외에서 장시간 노출되어 행사에 참여하기가 힘들었음.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소방차로 물 뿌리기”, “시원한 바람을 내는 냉방차의 가동” 등과 같이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한 점이 돋보였음.
- 또한, 행사장의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상품판매장, 전시공간, 체험공간, 공연장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관광객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 동선도 이번 축제를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게 한 요인이 되었음.

□ 개선할 점

- 축제기간이 너무 무더웠을 뿐만 아니라 행사장이 넓어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및 휴게공간의 확보는 축제기획 단계부터 고려했어야 했지만 이번 축제에서 이러한 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박물관 및 전시장 등에 몰려 이곳의 혼잡함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축제장 밖에 마련된 주차장을 몇 곳으로 분산하여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면적 및 진입로가 협소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음.

### (3) 축제 프로그램

#### □ 잘된 점

- 강진 청자문화제에서는 고려청자 신비의 소리듣기, 청자흙만들기, 청자도판 찍기, 청자파편모자이크, 청자빚기, 전통발물레차기 체험 등 청자제작과 관련된 체험행사들이 많았는데 이들 행사는 참가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았으며 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음.
- 강진은 농업과 어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복합지역이라 할 수 있음. 이번 축제에서 맥반석 건강걷기, 수박·참외 골라따기, 테마꽃밭 건강걷기 및 화분 담아가기, 봉선화 손톱 물들이기, 천연염색체험, 소원성취 죽등만들기, 소달구지 열차여행, 분재·야생화 전시, 짚 공예시연, 물미끄럼틀 타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을 비교적 잘 살린 단위 행사로 평가 받을 수 있었음.

#### □ 개선할 점

- 이번 강진문화제에는 총 5개부분 81개의 단위 행사가 7일간의 축제기간동안 진행되었음. 이는 하루 약 11~1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셈인데, 축제장의 규모로 볼때 결코 많은 프로그램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를 달리 해석하면 뚜렷한 중심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 (4) 쇼핑 및 음식

#### □ 잘된 점

- 축제장의 먹거리 장터 상인들은 일과성 고객을 대상으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고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음. 따

라서, 축제장의 먹거리 장터를 찾은 관광객들은 바가지 요금과 서비스 부실로 말미암아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4 강진 청자문화제 먹거리 장터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불만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개선할 점

- 관광객들이 고려청자를 생활속의 도자기로 여길 수 있도록 청자제품의 대중화가 필요함. 그러나, 축제현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려청자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청자를 구매하는 관광객은 소수에 불과함.

(5) 운영 및 주민참여

□ 잘된 점

- 축제장 입구에 마련된 테마 꽃밭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개월 간의 노력 끝에 조성된 공원임. 이와 같은 주민 참여 시스템은 축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개최한다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조성한 테마꽃밭은 관광객들에게 고향의 인심과 같은 포근함을 줄 수 있었음.

□ 개선할 점

- 강진 청자문화제에는 다른 문화관광축제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플라카드와 허수아비 등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설치물들로 유명함. 이와 같은 설치물들은 우연히 이곳을 방문한 휴가관광객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축제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홍보물이 지나치게 많아 소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음.

## (6)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 □ 잘된 점

- 이번 축제에서 상설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외국청자 비교전시전”은 강진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네델란드, 중국, 일본 등 관련국 관광객들의 축제장 방문을 유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음.

### □ 개선할 점

- 박물관은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축제장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입구에 안내원만 배치되어 있었을뿐 전시 내용을 설명하는 전문(통역) 안내원이 배치 되어 있지 않았음.

## (7) 숙박 및 연계관광

### □ 잘된 점

- 강진 청자문화제는 축제기간이 휴가철과 중복되어 주말에는 읍내의 숙박시설이 대부분 예약이 완료되어 축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더불어 읍내의 음식점들도 평상시보다 평균적으로 30% 이상 매출이 신장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 개선할 점

- 강진 청자문화제가 개최되는 대구면 도요지는 강진읍내에서 20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축제장을 찾은 체류관광객들은 축제장에서 읍내까지 다시 나와 투숙을 하는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었음.



## (다) 축제의 사회·문화·환경적 영향

### (1) 축제의 사회적 영향

#### 지역이미지 고양

- 강진읍에서 축제장으로 가는 23번 국도 주변과 행사장 곳곳에는 이 지역이 고려청자의 고장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음. 이러한 조형물들은 강진이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생산지요 집산지이며, 강진에서 청자문화제를 개최하는 당위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이미지 제고전략이라고 할 수 있었음.

#### 여가기회 확대

- 강진청자문화제는 일반인들의 여름휴가 및 방학기간에 개최됨으로써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건전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농번기를 벗어난 모처럼의 여가시간을 축제기간 동안 즐길 수 있었음.

#### 교육기회 제공

- 강진 청자문화제가 개최된 축제장은 1회성 행사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이곳에는 청자박물관, 도요지, 청자판매장 등 청자관련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곳이므로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학생들의 체험교육, 역사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

### (2) 축제의 문화적 영향

#### 지역문화 소개

- 강진은 영랑생가, 무위사, 다산초당 등 관광명소가 많아 축제참가를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를 소개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임. 특히 남도 답사1번지로 널리 알려진 강진은 평소에도 많은

답사객들로 봄비는 지역이므로 축제를 통해 이러한 지역문화를 종합적으로 대내·외 관광객들에게 폭넓게 소개하는 기회가 되기에 충분하였음.

지역문화 이해

- 강진청자문화제는 강진의 역사적 명소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이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음.

지역문화 발전

- “시간여행! 고려청자 그 천년의 신비속으로”라는 슬로건이 말해주듯이 천년동안 베일에 감춰진 고려청자 제작의 문화적 해석을 재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음.

(3) 축제의 환경적 영향

환경과의 조화

- 이번 강진 청자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청자와 꽃이 어우러진 축제를 위해 테마형 꽃밭단지 조성 및 포토체험장 시설의 확대, 봉숭아 꽃물들이기, 꽃밭길 걷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축제의 주제와 조화되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환경보존 노력

- “흙, 불 그리고 인간”이라는 강진청자문화제의 주제는 이 축제가 지극히 환경적 요소를 중요시하고 있는 축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이러한 자연보존의 상징을 프로그램화 한 것이 수박·참외 등 자연학습장의 설치, 봉숭아 손톱 물들이기 등이라고 할 수 있었음.

환경오염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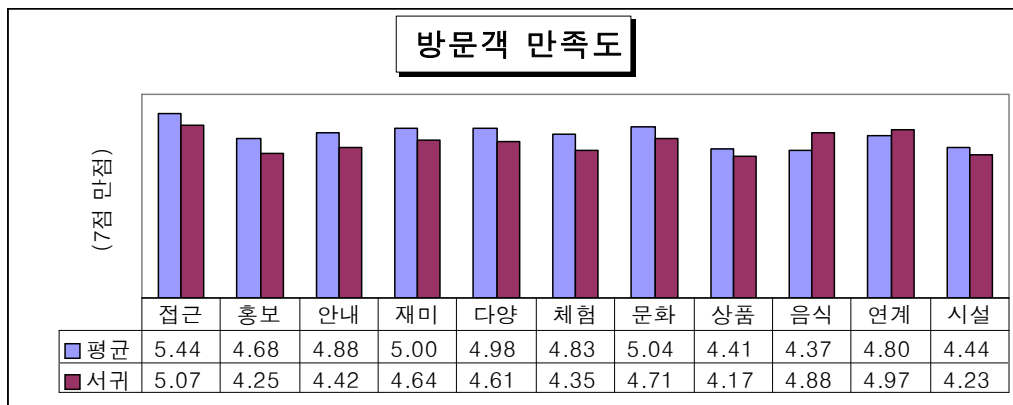
- 축제는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동안 열리는 일시적인 행사여서 축제

기간동안에는 일시에 많은 사람과 차량이 제한된 공간에 밀집하게 되므로 축제의 주제와 이념과 관계없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공해배출, 오염물 발생 등이 필연적인 축제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됨.

#### 4) 서귀포칠십리축제

##### (가) 설문조사 분석

- 만족도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인 서귀포시는 축제장 인근에 다양한 연계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축제장으로 사용된 천지연광장은 유명 관광지인 만큼 부근에서 제주도 고유음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었음. 결과적으로 연계관광과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평균값을 상회하였음.
- 그러나 나머지 측정 항목은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였음. 홍보와 안내 등의 기초적 부문에서부터 재미·행사 다양성·체험 프로그램 등 축제의 골격을 이루는 부문까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칠십리축제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지역문화 이해'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으며, 축제상품도 낮은 평가를 받았음.



<그림 3-7> 서귀포칠십리축제 방문객 만족도

- 소비지출 부문에서는 축제에서 발표한 방문객의 소비지출 자료는 축제장 및 서귀포시에서 지출한 비용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여행경비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음. 이렇듯 지나치게 과대 계상된 까닭에 당 축제의 소비지출 내역을 통계분석 자료로 채택할 수 없었음.

## (나) 부문별 평가

### (1) 홍보 및 안내

#### □ 잘된 점

- 서귀포는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지인 만큼 언론을 통한 홍보가 돋보였음. 주요 중앙일간지를 비롯하여 지역신문 등에 축제홍보기사가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었기 때문임.
- 더불어 제주공항과 항만 등 제주와 외부를 연결하는 주요 관문마다 홍보자료를 비치하고 배포하였으며, 홍보 리플렛 내용이나 디자인도 우수한 편임. 그리고 인지도가 매우 높은 천지연폭포 및 서귀포항 일대를 행사장으로 설정한 까닭에 관광객들의 행사장 접근도 매우 용이하였음.

#### □ 개선할 점

- 비록 대외적인 사전홍보는 우수한 편이었지만, 대내적인 현장홍보와 안내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 우선 현장홍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문안내소의 경우, 그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음.
- 더불어 축제장 홍보관에서 배포한 홍보물의 내용에 '8월말까지 자원봉사요원을 모집한다'는 과거형 광고문구가 게재되어 있었음. 일부 프로그램이 변경되고 해당 문구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을 폐기 처리하지 않았음.

## (2) 행사진행전반

### □ 잘된 점

- 서귀포 칠십리축제는 일반인들에게 2가지 연상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첫째는 서귀포(西歸浦)라고 하는 지명을 연상시키며, 둘째는 칠십리(七十里)라는 축제의 제목을 생각하게끔 함. 따라서 당 축제는 서귀포와 칠십리라는 2가지 소재를 프로그램 개발의 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 주최측에서는 행사장을 크게 칠십리 해양파크(서귀포항 물양장)와 칠십리 테마파크(천지연폭포주차장)로 이원화하였고 각각의 장소에 바다낚시, 스쿠버다이빙, 수영대회 등의 바다관련 프로그램과 십이동마당놀이를 비롯한 문화공연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배치하였음. 결과적으로 서귀포와 칠십리라는 다소 이질적인 소재가 기막히게 조화를 이루게 되었음.
- 또한 전년도에 제기된 지적사항을 개선한 흔적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작년에 텅하게 비어있던 중앙의 놀이마당을 올해는 마당무대, 놀이마당, 풍물장터, 벼룩시장 등 4가지 주제공간으로 분할하였으며, 이중섭거리에서 진행되었던 십이동마당놀이를 천지연광장으로 옮겨 진행하였음.

### □ 개선할 점

- 칠십리축제의 정체성 부분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음. 이미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이상 당 축제는 경쟁력 높은 상품으로 기획되어야 함. 따라서 축제의 명칭에서부터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칠십리'라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한 까닭에 관광객들이 '서귀포=칠십리'의 상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하였음.
- 그러한 반증은 행사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당 축제의 얼굴에 해당되는 입구는 그 흔한 환영아치 하나 없이 무단 주차된 차량과 잡상인으로 뒤범벅되어 있었으며, 축제안내부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3) 축제 프로그램

#### □ 잘된 점

- 주최측에서는 항구도시인 서귀포의 특성을 살려 선상바다낚시, 스쿠버다이빙, 바다핀수영대회, 해녀태왁수영대회 등의 체험적 바다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음. 바다낚시의 경우 파도가 잔잔하면 자세를 이용한 고파질 낚시(심층바다낚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파도가 높으면 달리는 배에서 자세에 묶인 낚싯줄에 3~4개의 오징어 루어를 매달고 수면 가까이를 회유하는 물고기를 낚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 개선할 점

- 비록 몇 가지 바다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행사장에서의 현장홍보가 대단히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진 곳에 체험접수처를 마련한 까닭에 관광객들의 이용빈도가 매우 낮았음. 또한 접수처의 진행요원들도 적극적으로 접수를 유도하지 않고 다소 수동적인 자세임.
- 외지 관광객들이 축제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지역문화 체험프로그램은 집줄꼬기, 물허벅지기 등의 '칠자놀이'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관광객이 운집하는 시간에는 아예 운영되지 않았음.
- 한편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칠십리대행진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일회성의 행진으로 기획된 까닭에 관광객들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였음.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시내에서 행사장까지 그 행렬을 뒤따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임.
- 축제의 게릴라이벤트 프로그램은 비록 장소는 사전에 공지하였지만(그러나 관광객들은 셋기정공원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음),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서 제한된 시간에 제주도 곳곳을 바쁘게 다녀야 하는 관광객들에게 이들 프로그램은 전혀 구실을 할 수 없었음.

#### (4) 쇼핑 및 음식

##### □ 개선할 점

- 축제장에서는 동별로 배정된 향토음식점과 세계품물전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 그러나 음식점의 경우 비록 동별로 식단 구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동 향토음식점'이란 똑같은 내용의 간판을 내걸었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그 차별성을 전혀 부각시키지 못하였음.
- 음식뿐만 아니라 기념품도 사정은 비슷하였음. 원래 주최측은 문화관광축제를 통하여 지역이미지를 고양하고 관광수입을 증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의 고유한 이미지인 감귤과 해산물을 홍보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별다른 전략을 강구하지 못하였음. 오히려 해외 기념품을 판매하는 세계품물전을 중시함으로써 서귀포 특산물은 더욱 행사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음.

#### (5) 운영 및 주민참여

##### □ 잘된 점

-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뜨거운 참여열기를 느낄 수 있었음. 십이동마 당놀이를 비롯하여 동별로 참여한 향토음식점, 칠십리대행진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나아가 곳곳에서 축제진행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요원들의 얼굴에서 대단한 자긍심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임.
- 민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열의도 상당히 높아 축제관련부서 공무원들의 경우 지적사항이 옳다고 판단되면 즉석에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할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였음.

□ 개선할 점

- 비록 서귀포가 수많은 유명 관광자원을 개발한 천혜의 관광지임에는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축제기획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측면은 다소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음. 축제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전체적인 경험축적이 부족해 보였음.

(6)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 잘된 점

- 천지연 폭포는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코스에 포함되는 곳이므로 축제가 열리는 천지연 입구는 평소에도 외국인을 위한 일반홍보물과 축제홍보물이 잘 비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를 통역해줄 수 있는 요원들이 상시 배치되어 있음.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공항에서 행사장까지 접근하는 과정도 큰 무리가 없었음.

(7) 숙박 및 연계관광

□ 잘된 점

- 서귀포시는 제주 중문관광단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최고의 계획관광도시로서 초현대식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택시나 버스를 이용한 효율적인 교통시스템도 대단히 잘 구축되어 있음. 여기에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에 산재한 관광자원 및 시설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도 잘 가동되고 있었음.



## (다) 축제의 사회·문화·환경적 영향

### (1) 사회적 영향

- 축제는 비록 올해 10회를 맞이했지만 2003년부터 문화관광(예비)축제로 지정된 까닭에 아직은 지역사회에 끼치는 파급효과는 적은 편이었음. 그럼에도 지역주민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참여정신은 대단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당축제의 미래가 대단히 밝음을 암시해 주는 현상임.

### (2) 문화적 영향

- 지역공동체사회가 복원되려면 먼저 지역주민들이 소속감과 공감대를 느껴야 함. 그런 의미에서 십이동 마당놀이를 기획·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소속감은 물론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3) 환경적 영향

- 무엇보다 축제를 돋보이게 하였던 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미항인 서귀포항과 천혜의 관광자원인 천지연 관광지 일대를 행사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임. 특히 배를 타고 바다에서 보는 축제장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켰는데, 그렇게 한라산을 배경으로 바다와 항구가 어우러진 모습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대단히 아름다운 풍경이었음. 이렇듯 주차장과 항구 등의 인공적 공간을 중심으로 여기에 천지연폭포, 한라산, 바다 등의 자연적 배경을 덧붙인 점은 축제의 친환경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음.

<표 3-9> 2005년도 문화관광축제 만족도 비교

축 제 명	축제별 평 균	접근 용이	사전 홍보	안내 시설	안내 책자	요원 친절	행사 재미	행사 다양
강경젓갈	4.84	5.61	4.86	4.77	4.47	4.89	5.20	5.21
강진청자	<b>5.25</b>	5.72	4.98	5.52	5.67	5.66	5.35	5.44
경주술과떡	4.42	5.01	4.55	4.39	4.67	4.74	4.55	4.55
광주김치	4.74	5.57	4.47	4.83	4.82	4.85	4.99	4.96
금산인삼	4.92	5.44	4.75	4.78	4.95	5.30	5.13	5.10
김제지평선	<b>5.21</b>	5.84	5.09	5.22	5.31	5.45	5.91	6.04
남도음식(예)	4.24	4.41	4.33	4.57	4.78	4.18	4.21	4.40
대구약령시	4.30	5.35	4.47	4.48	4.59	4.40	4.30	4.53
무주반딧불	4.89	5.71	4.63	4.81	5.11	5.15	5.13	5.07
보령머드	4.70	5.88	4.49	4.69	4.76	5.02	5.65	5.14
보성다향제(예)	4.25	4.88	3.96	4.27	4.27	4.07	4.20	4.18
봉화송이(예)	4.65	5.84	4.93	4.80	4.98	4.98	4.94	4.75
부산자갈치	<b>5.27</b>	6.17	5.39	5.19	5.53	5.57	5.73	5.57
서귀칠십리(예)	4.49	5.07	4.25	4.33	4.38	4.54	4.64	4.61
아산이순신	4.25	4.75	4.34	4.32	4.47	4.88	4.80	4.95
안동탈춤	<b>5.66</b>	6.26	5.72	5.89	5.98	5.91	6.08	6.22
양양송이	4.82	5.33	4.77	4.88	5.08	5.08	4.77	4.72
연천구석기(예)	4.44	4.93	4.41	4.67	5.03	5.13	4.97	5.15
영동난계	4.84	6.02	4.50	4.66	5.01	5.13	5.49	5.29
진도영등	4.21	4.93	4.66	4.36	4.60	4.43	4.50	4.41
진주유등	4.67	5.94	4.72	4.91	4.89	4.80	5.38	5.21
충주무술	4.06	4.49	4.16	4.15	4.26	4.37	4.57	4.47
평창효석(예)	4.71	5.57	4.87	4.76	4.91	4.87	4.78	4.69
풍기인삼	4.67	5.47	4.96	4.86	4.91	5.00	4.59	4.56
하동야생차	4.78	5.26	4.74	4.68	5.25	5.08	4.84	4.86
한산모시	<b>5.05</b>	5.99	4.73	5.22	5.45	5.28	5.34	5.47
<b>평 균</b>	<b>4.70</b>	<b>5.44</b>	<b>4.68</b>	<b>4.77</b>	<b>4.93</b>	<b>4.95</b>	<b>5.00</b>	<b>4.98</b>

체험 프로	문화 이해	상품 다양	상품 품질	상품 가격	음식 다양	음식 가격	연계 관광	주차 편리	휴식 공간	화장실
4.94	5.14	4.51	4.46	4.39	4.71	4.18	4.21	5.11	4.91	5.48
5.54	5.74	4.97	5.13	4.79	4.63	4.58	5.32	4.85	5.03	5.58
4.45	4.45	4.06	4.17	4.16	4.54	4.09	4.99	4.10	3.90	4.15
4.68	4.60	5.00	5.03	4.72	4.79	4.36	4.41	4.22	4.58	4.50
4.94	5.33	5.36	5.35	4.96	5.02	4.76	4.51	4.08	4.13	4.74
5.73	5.50	4.76	4.96	4.95	5.19	5.10	4.80	4.11	4.79	4.94
4.12	4.28	3.91	3.87	3.70	4.85	3.91	4.04	4.18	4.10	4.48
4.40	4.51	4.03	4.04	4.02	3.93	3.95	4.18	3.41	4.31	4.45
4.80	5.11	4.71	4.78	4.44	4.52	4.24	5.23	3.93	4.86	5.74
5.33	4.62	4.38	4.41	4.37	4.24	4.08	4.51	4.29	4.56	4.22
4.04	4.59	4.23	4.33	3.96	4.01	3.83	4.80	4.19	4.37	4.25
4.43	5.27	4.16	4.34	3.89	4.22	3.75	5.01	4.69	4.52	4.28
5.37	5.77	4.91	4.93	4.94	5.65	5.29	5.81	4.49	4.16	4.37
4.35	4.71	4.20	4.22	4.10	5.54	4.21	4.97	3.77	4.22	4.69
4.52	4.77	3.77	3.93	3.88	3.61	3.47	4.49	2.94	4.01	4.58
5.94	5.95	5.69	5.39	4.85	5.13	4.35	5.66	5.43	5.37	6.04
4.84	4.95	4.41	4.58	4.37	4.64	4.59	5.13	4.97	4.79	4.84
5.09	4.69	3.78	4.03	4.08	4.03	4.28	4.14	3.99	3.67	3.92
5.51	5.43	4.44	4.80	4.64	4.55	4.00	4.75	4.25	4.27	4.31
4.30	4.71	3.53	3.65	3.47	3.58	3.15	4.58	4.52	4.03	4.45
4.48	5.24	4.35	4.21	4.21	4.34	3.86	4.81	3.38	4.29	5.01
4.71	4.43	3.71	3.70	3.67	3.60	3.58	3.75	3.70	3.50	4.20
4.41	5.34	4.08	4.21	4.29	4.70	4.87	5.27	4.06	4.44	4.67
4.61	4.87	4.27	4.46	4.38	4.37	4.32	5.06	4.90	4.06	4.44
4.88	5.36	4.64	4.83	4.44	4.28	4.33	5.52	3.94	4.33	4.82
5.21	5.56	4.92	5.09	4.41	4.62	4.63	4.85	4.02	5.10	5.08
<b>4.83</b>	<b>5.04</b>	<b>4.41</b>	<b>4.50</b>	<b>4.31</b>	<b>4.51</b>	<b>4.22</b>	<b>4.80</b>	<b>4.21</b>	<b>4.40</b>	<b>4.70</b>

자료 : 문화관광부, 200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5.2. pp.14-15에서 인용.

<표 3-10> 2005년도 문화관광축제 부문별 장점 평가비교

구분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김제지평선축제
홍보·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활용도가 높음</li> <li>• 홍보이용매체가 다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까지 안내가 적절</li> <li>• 셔틀버스의 적절한 운영</li> </ul>
행사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 장터리 정돈</li> <li>• 행사장 동선의 효율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선이 비교적 효율적</li> <li>• 행사장과 축제의 적합성</li> </ul>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체험프로그램</li> <li>• 타 지역과의 차별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유형별 적절한 안배</li> <li>• 대부분의 프로그램 무료운영</li> </ul>
쇼핑·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되는 특산품의 확보</li> <li>• 전문식당과 포장마차의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가지 상혼 근절</li> <li>• 외지와 지역상인 활동영역 구분</li> </ul>
운영·주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참여가 적극적</li> <li>• 행사운영의 적시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li> </ul>
외국인수용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양의 외국인용안내서</li> <li>• 외국인의 상근직 고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로 된 이정표 설치</li> </ul>
숙박·연계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지역의 연계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평선 들녘열차의 운행</li> </ul>
구분	강진청자문화제	서귀포칠십리축제
홍보·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인지도가 아주 높음</li> <li>• 다양한 외국어 홍보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기사가 상세히 소개</li> <li>• 홍보물의 디자인이 우수</li> </ul>
행사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변화에 적절한 대처</li> <li>• 행사장 동선의 효율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지적사항을 바로 실행</li> </ul>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의 정체성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낚시 프로그램 운영</li> </ul>
쇼핑·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가지요금신고센터의 운영</li> </ul>	
운영·주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 주민참여시스템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의 자긍심 높음</li> <li>• 공무원들의 열의가 높음</li> </ul>
외국인수용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청자비교전시전의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역요원이 충분히 배치</li> </ul>
숙박·연계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파급효과가 양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현대식 숙박인프라 확보</li> <li>•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활발</li> </ul>

자료 : 문화관광부, 200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5.2 평가내용을 재구성.

<표 3-11> 2005년도 문화관광축제 부문별 단점 평가비교

구분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김제지평선축제
홍보·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프로그램별 안내서 부족</li> <li>• 안내원들의 교육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의 정보부족</li> <li>• 접근도로의 혼잡</li> </ul>
행사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에 적합한 프로그램 부족</li> <li>• 휴식시설이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공간의 부족</li> <li>• 여성이용자 공간 부족</li> </ul>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판매위주의 상업성</li> <li>• 무대의 협소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평선과 연계되는 이미지 부족</li> <li>• 독창적 프로그램의 부족</li> </ul>
쇼핑·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와 관련된 기념품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환경의 보완필요</li> <li>• 상품에 대한 홍보부족</li> </ul>
운영·주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객관리가 부적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객의 대부분이 지역주민</li> </ul>
외국인수용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역안내원의 수가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부족</li> <li>• 통역안내원의 식별 어려움</li> </ul>
숙박·연계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산서원, 하외마을과의 연계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관광지정보 부족</li> <li>• 당일관광객 위주 홍보</li> </ul>
구분	강진청자문화제	서귀포칠십리축제
홍보·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홍보가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홍보와 안내체계 부족</li> <li>• 홍보물의 내용 부정확성</li> </ul>
행사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공간의 부족</li> <li>• 주차공간의 협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의 정체성 확보 부족</li> </ul>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징프로그램의 미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프로그램의 부족</li> <li>• 프로그램 정보제공 미약</li> </ul>
쇼핑·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위주의 상품판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똑같은 간판으로 차별성 미흡</li> <li>• 지역특산물 홍보부족</li> </ul>
운영·주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물의 과다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기회 개발미흡</li> <li>• 전문가 부족</li> </ul>
외국인수용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통역안내원의 배치 부족</li> </ul>	
숙박·연계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장과 숙소와의 원거리문제</li> </ul>	

자료 : 문화관광부, 200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5.2 평가내용을 재구성.

## 2. 국외 사례

### 가. 벨기에 뱅슈 카니발<sup>27)</sup>

#### 1) 축제 연혁

- 뱅슈 카니발의 기원은 1549년 오스트리아 제국 시절 헝가리의 왕비 마리(Marie de Hongrie)의 행적과 깊은 관계가 있다. 마리는 ‘뱅슈의 부인’이란 칭호를 들을 정도로 뱅슈를 좋아하여 기거하였는데, 1549년 8월 22일 마리의 오빠인 오스트리아(당시 신성 로마제국)의 찰스 5세(Charles Quint) 황제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고 뱅슈에서는 굉장한 축제가 벌어지게 됨.
- 이러한 축제가 이후에는 카니발이 열리는 2월에 맞추어 재개봉되었고 현재 까지 남아있는 지역 축제 동아리 같은 것이 18, 19세기에 도시내의 중상층에서 조직되어 지금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음.

#### 2) 조직 및 참여 단체

- 뱅슈의 카니발은 지역주민의 조직들에 의해 운영되며, 대표적인 조직은 ‘질(Gilles)’이란 조직임. 이 조직은 1795년 2월 11일 지방문서에 처음 언급되는데, 현재의 조직이 형성되는 것은 19세기임. 현 조직은 도시 성벽안의 상공 부르주아들이 주도하며 카페나 바 등에서 모였고, 그 외에 성밖에는 농부(Paysan) 혹은 어부(marin)라고 불리는 조직들이 있었음. 그러나 농촌 조직들은 점차 소멸하고 현재에는 학생들에 의해 이전 복장만이 재현되고 있음.
- 이 외에도 시에서 관장하는 ‘국제 탈 박물관’에서도 카니발을 함께 운영하는데 시는 경찰력 및 도시계획부서를 통해서 축제 때 시의 치안 및 정비를 하고 홍보 활동도 시청 내부의 관광안내과에서 담당함.

---

2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74호, 2000. 3.

### 3) 개최 시기 및 장소

- 개최 시기는 전통적인 카니발의 날짜인 사순절 이전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이고, 개최 장소는 벨기에의 뱅슈지방임.

### 4) 행사 내용

- 대부분 1월부터 북치기와 행진의 예행연습이 벌어지고, 카니발 한 주일 전의 월요일 밤에는 '트루 드 누르(Trouilles de Nouilles)'라는 행사, 카니발 전 3주간 토요일 마다 대학생 그룹이 순서대로 무도회를 개최함.
- 카니발 바로 전 일요일에는 미래의 '질'인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복장을 하고 거리에서 행사를 하고, 카니발 바로 전날인 월요일 룬디 그라(Lundi Gras)는 젊은이의 날로 대학생그룹이 아침에 행사, 오후에는 어린이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함.
- 마르디 그라 아침에는 새벽 5시부터 모자를 쓰지 않은 '질'들이 행사를 하고, 가장 중요한 '질'의 공식 행렬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데, '질'의 그룹들은 절대로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질'은 뱅슈의 성곽 안에서 행사를 벌여야 '진짜 질'이 되는 것이지 홍보를 위해 외부로 다니는 일은 '가짜 질'이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음.

### 5) 시사점

- 뱅슈 카니발은 벨기에의 뱅슈(Binche)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전통 카니발로서 여기서 전통이라 함은 첫째로 전통적인 카니발의 날짜인 사순절 이전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행해진다는 점, 두 번째는 주민과 상관없는 스펙타클이나 쇼무대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축제라는 것임.
- 근래에 들어와 많은 카니발 행사가 관광 측면에 맞춰 전통과 상관없이 축제 날짜를 잡거나 혹은 아예 관광객이 많은 여름에 여는 편법운용을 하는

데 반해 뱅슈는 관광 보다는 전통의 고수를 더욱 중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니스나 비에라지오 카니발이 관광객을 위한 화려한 쇼를 기획하여 전문가들을 등장시킨 이벤트를 시에서 기획하는 데 반해, 뱅슈축제는 카니발을 위한 전통 주민 단체가 매년 행사를 관장하고 이에 선정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주민의 축제'라는 차별성을 지남.

- 또한 전통 재현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집단의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여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음. 관광에 주안점을 둔 행사가 아니라 주민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축제로 자리잡고 있음.
- 이 뱅슈의 카니발은 독자적인 민속성과 역사성으로 서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화려한 축제의 하나로서 카니발 하나로 인구 3만명의 조그만 벨기에의 도시가 세계에 알려졌다는 자부심은 전통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있음.

## 2. 아비뇽 축제

### 1) 축제 연혁

- 아비뇽축제는 프랑스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유명한 축제로서 1947년 9월에 연극배우이자 무대감독인 장 빌라르(Jean Vilar · 1912~1971)가 '아비뇽에서 예술의 주간을'이라는 기치 아래 교황청 안마당에서 세 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시작되었음.
- 아비뇽축제를 창설한 빌라르의 의도는 당시 파리에서 공연되던 연극들과는 다른 형식의 연극을 통해서 젊은 관객들, 정열적이고 신선한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었는데, 아비뇽축제는 시작 이래 지금까지 57년 동안 단지 4명의 책임자를 거치면서 성장해 올 만큼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였음.

### 2) 조직 및 참여 단체



- 1980년대 이래 아비뇽페스티벌은 유럽의 다른 모든 페스티벌 단체와 마찬가지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므로 축제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 지원단체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재정 수입의 약 55%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임.
- 축제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행정위원회(conseil d' administration)는 재정 후원을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축제 관련 문화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는데, 일년에 두 세번 회의를 열어 축제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나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예산안 및 결산을 의결함.
- 축제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예술국장(le directeur artistique)과 조직국장(le directeur charg de l' organisation)인데 이들은 모두 5년 임기로 행정위원회에 의해 임명됨. 이 중 예술국장은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축제 프로그램의 선택에 대하여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통은 모든 기관들에 의해 지금까지 존중되어 왔음.
- 축제 조직인원은 평소에는 20명 내외의 직원이 상근하며, 파리와 아비뇽 본부로 나뉘어서 근무하지만 축제 개최기간에는 수백명의 아비뇽 시민들이 임시직 및 자우너봉사의 형태로 고용됨.

### 3) 개최 시기 및 장소

- 개최 시기는 매년 7-8월경에 20여일간 개최되고, 축제의 주공연장은 교황청(palais des papes)이지만, 그밖에도 성당, 수도원, 고등학교 운동장, 시립극장, 광장, 채석장의 빈터 등이 공연장으로 사용됨.

### 4) 행사 내용

- 아비뇽 축제는 '공공성 연극축제'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듯이 연극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연극이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는 하나 1964년부터는 그 영역을 뮤지컬, 무용, 현대음악 등 다른 예술분야에 까지 넓혀 왔음. 몇 년 전부터는 시(詩), 미술 및 연극사 전시회, 영화와 비디오아트에 이르

기까지 문호를 개방하였음.

- 그러나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는 프로그램으로 선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비뇽에서 가까운 도시들, 예컨대 오랑주(Orange)나 엑상 프로방스(Aix-en-Provence) 등에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축제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임.
- 아비뇽축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한 분야는 축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비평, 토론과 교육 프로그램임. 축제본부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그 날 공연될 작품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으며, 전문가들이 생루이 공간(l' espace Saint-Louis)에 모여 작품에 대한 토론을 벌임.

## 5) 시사점

- 아비뇽축제에서는 행정기관은 지원만 하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축제 주최측에서는 축제가 시작되기 18개월 전부터 작품 선정작업에 들어가는 치밀함을 보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창작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함으로써 유럽 연극계를 선도하고 있음.
- 이웃도시를 위해서 클래식음악이나 오페라는 무대에 올리지 않는 점도 축제의 독창성과 차별성 유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관중들의 높은 관람 수준은 관객의 수준이 공연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축제 조직인원은 평소에는 소수이나,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아비뇽 시민 수 백 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는 점임.

## IV. 제주형 축제평가모델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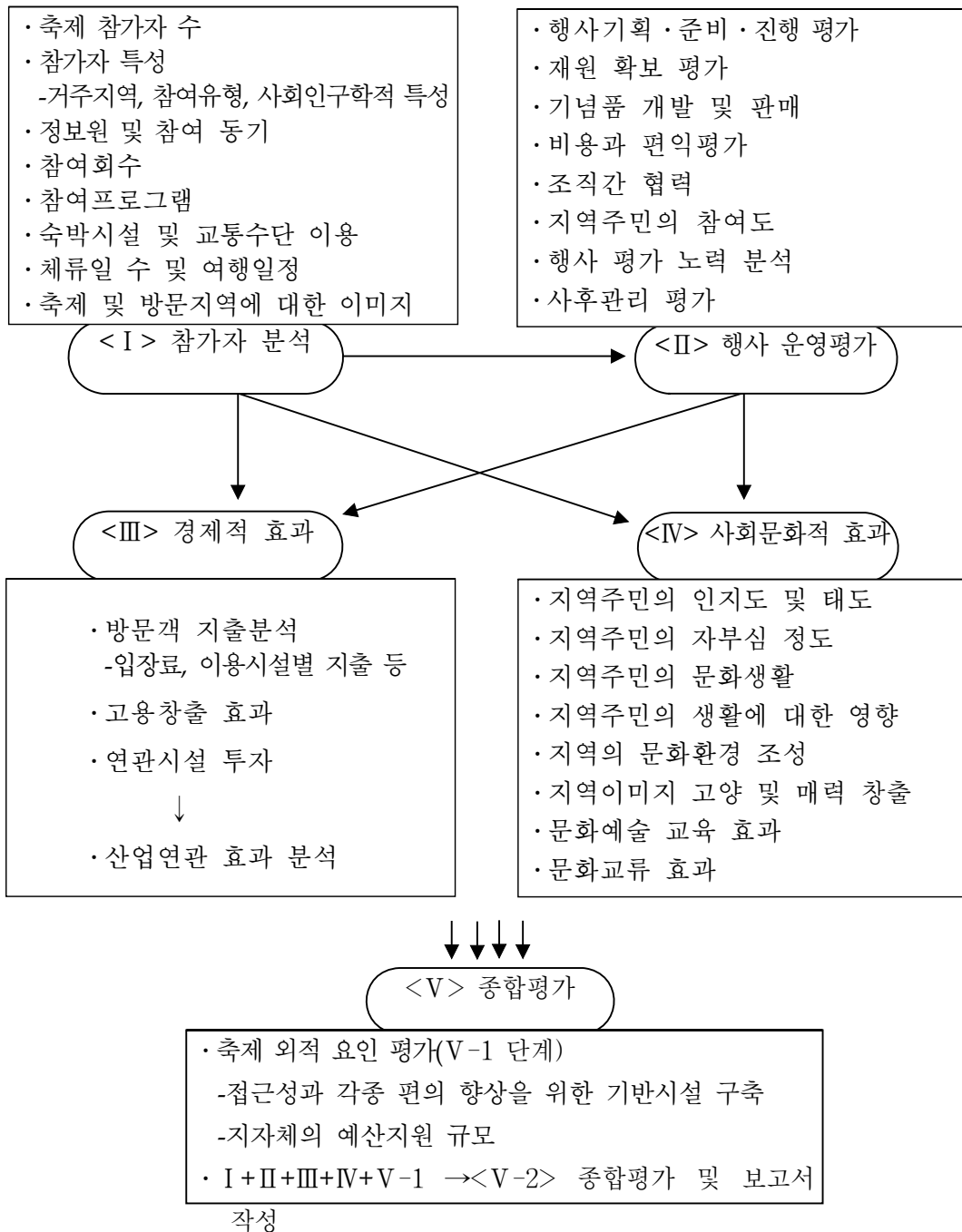
### 1. 축제평가모델의 배경

#### 가. 평가체계의 필요성

- 제주지역 축제는 축제가 지역화합 및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측면이 강함에도 체계적 또는 계량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방안을 구축하는 데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체계적인 목표 설정이 어려움.
- 대부분 제주지역 축제평가보고서가 설문조사법, 신문 기사 내용 등에 의존하여 축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 등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한 축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제주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프로그램의 구성은 대부분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모든 축제 가운데 그 취지와 목적, 테마와 주제 등의 차별성과 운영방식의 효율성 및 성과 등을 감안하여 축제별로 육성 등급을 책정하는 등 통합적 관리가 요구됨. 즉, 지자체의 예산 등 행·재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함.
- 무엇보다도 이상의 이유로 국내 제1의 관광경쟁력을 갖춘 제주지역의 축제가 중앙정부(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대표축제로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모델의 개발이 시급함.
- 그리고 지리적 환경이 타 지역과는 전혀 상이하야 문화관광부의 평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제주형 평가모델의 개발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근거자료로써 활용할 필요성도 큼.

## 나. 평가지표의 검토

- 먼저 지역축제 자체에 대한 평가는 축제기간 중 행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기록 보존을 통해 행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축제 목표와 컨셉을 재정립하고 다음 연도의 축제 기획에 반영하는 피드백(feedback)과정을 거쳐야 함.
- 효율적인 평가기법을 확립하여 평가표를 만들어야 하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함. 물론 이러한 문서들은 차기년도에 실시될 축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함.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역축제의 평가지표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면 <그림 4-1>과 같다.
- 이 그림에서 나타난 각 단계는 형식상의 처리단계일 뿐 실제 평가과정에서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V-1 단계는 다른 단계와의 관계없이 평가할 수 있으며, II단계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도 있음.
- 하지만 대체적으로 I 단계는 다른 평가단계 보다 먼저 수행되어야 하며, III단계와 IV단계에 앞서 II단계가 먼저 수행되어야 함. 예를 들어 I 단계의 '참여프로그램' 항목은 II단계 평가의 기초가 되며, '숙박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 항목은 III단계, 그리고 '축제 및 방문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IV단계 평가 자료가 됨.
- I 단계의 모든 측정치들은 다른 단계를 평가하는 기본이므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동원되어야 함. 그리고 각 단계 내에서도 항목별 평가 순서 등 체계를 정립해야 함. 예를 들어, II단계에서는 '비용·편익평가' 이전에 '재원 확보' 상황 등이 파악되어야 하며, IV단계에서는 '산업연관 효과' 분석 이전에 '방문객 지출', '고용창출 효과', '연관시설 투자'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그리고 접근성과 각종 편의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자체의 예산지원 규모, 그리고 개최 회수 등 축제의 외적 여건을 평가하여 V단계 '종합평가'에 포함하여야 함. 또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축제의 내용과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도록 해야 함.



<그림 4-1> 단계별 평가지표 및 상관관계

<표 4-1> 문화관광축제의 관광상품화 관련 세부 점검항목 및 평점 구분

관련항목	배분	세부항목		기준점수
1. 축제행사의 구성 및 내용	25%	행사내용	독창성	7
			흥미성	7
			이해성	7
			충실성	7
			고유성	7
		개최기간	5	
		체험관광	5	
		주민참여 프로그램	5	
2. 문화관광자원	15%	소계(A)		50
		자연 지리	5	
		지역특산물	5	
		역사문화	5	
		스포츠 레크레이션	5	
		관광관련 문화행사	5	
		타관광지와 연계성	5	
		소계(B)	30	
3. 관광수용체계	10%	소계(C)		20
		교통체계 구축	5	
		주차시설 및 안내체계	2	
		식당(인근 및 간이)	2	
		대중휴게시설/편의시설	2	
		공연시설	2	
		홍보(인터넷 등)	5	
		축제추진 인력 조직의 구성	2	
4. 경제효과	25%	관광객 유치실적	외국인	15
			내국인	10
		캐릭터 상품개발	15	
		스폰서쉽 유치	10	
		소계(D)	50	
5. 사회문화	10%	소계(E)		20
		안전성 및 범죄	5	
		외국과의 연계성	5	
		지역주민 호응도	10	
6. 환경·기술	5%	소계(F)		10
		환경보호프로그램	5	
		축제후 쓰레기 규모	5	
7. 외적 요인	10%	소계(G)		20
		지사체의 개최 또는 지원 의지	5	
		개최시기	3	
		개최회수	3	
		행사장 접근성	3	
		인근 숙박시설 유무	2	
		기반시설	2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2	
총계(A+B+C+D+E+F+G) = 200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축제의 진단과 발전 방안」, 2000, p. 204

<표 4-2>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구 분	내 용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평가사항 : 축제장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li> <li>○ 외래객 유치실적 : 인바운드 여행사의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조사</li> <li>○ 문화관광부 자체평가 : 축제 개최시 참관</li> </ul>
산정방법 : 총점 100+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점 100점 : 공통평가사항(70점)+외래객 유치실적(20점)+문관부 자체평가(10점)</li> <li>○ 가산점 : 전년대비 외래객 유치실적에 따라 차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외래객 유치실적 대비 금년도 증가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이상 ~ 10%이하 증가시 1점</li> <li>- 11%이상 ~ 20%이하 증가시 2점</li> <li>- 10% 증가시마다 1점씩 추가</li> <li>- 91%이상 ~ 100%이하 증가시 10점</li> <li>- 100%이상 증가시, 최고 15점 부여</li> </ul> </li> </ul> </li> </ul>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별 공통평가 항목의 설정 및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별 전문가 평가지 공통평가항목을 포함해 설문조사하여 축제별 방문객 의견 상호 비교</li> <li>· 공통평가 7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객중 관광객(외국인, 외지인)비율</li> <li>- 관광객 1인당 지출액(숙박, 식음료, 현지교통비, 유흥, 쇼핑비 등)</li> <li>- 전체적인 행사 짜임새에 대한 관광객의 평가</li> <li>-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li> <li>- 음식 판매부스 및 가격에 대한 만족도</li> <li>- 관광정보안내체계에 대한 만족도(안내부스, 안내요원, 홍보물 등)</li> <li>-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li> </ul> </li> <li>· 설문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축제기간중 3일간 조사(토, 일요일은 반드시 1일 포함)</li> <li>- 유효표본수 : 250명 이상</li> <li>- 응답내용 : 7단계로 구분(예 : (1)아주만족, (2)~(6), (7) 아주불만족)</li> <li>- 구체적 산정방법 : 문항별 10점 만점, 총점 70점 기준으로 차등 부여</li> </ul> </li> </ul> </li> <li>○ 외래객 유치실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및 인바운드 여행사의 유치실적 조사</li> <li>- 구체적 산정방법 : 20점 만점을 최고로 차등 부여</li> </ul> </li> <li>○ 문화관광부 자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시 문화관광부 참관자가 프로그램 전반(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정보제공 및 홍보전략, 관광객 참여도 등을 평가</li> <li>- 구체적 산정방법 :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으로 5등급 평가</li> </ul> </li> </ul>

자료 : 한국관광공사, 「축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0, p.7.

## 2. 제주형 축제평가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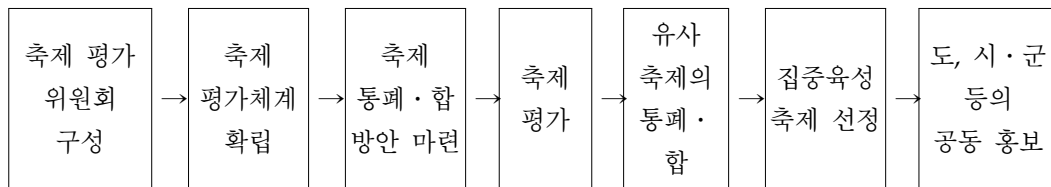
### 가. 평가체계의 과정

- 제주지역 축제의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통·폐합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조직을 보강하는 것임.
- 현재 제주도에 있는 제주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나 이벤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는 실정임. 축제의 파급효과에 대한 중요성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함.
- 제주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거나 축제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 집단이 많을수록, 단일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축제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필요성과 실정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 축제를 전담하여 개발·육성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이 시급함. 조직은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상호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기존 제주도에 있는 제주지역의 관광이벤트(축제)를 국제수준의 이벤트로 발전시켜 관광객 유인 효과를 높이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9년에 '제주도축제자문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는 '제주도축제지원연구팀'이 구성되어 제주 대표축제의 개발과 축제평가 기준 마련을 시도하였으나, 많은 제약으로 최선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상황임.
- 따라서 기존의 '제주도축제자문협의회'는 상위 자문기구로서 활성화시키고, '제주도축제지원연구팀'을 확대·개편하여 축제 관련 연구 및 평가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인 신설 '제주도축제평가위원회'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가칭 '제주도축제평가위원회'는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범도민적 위원



회이지만 전문성을 갖춘 최소한의 구성원들로 구성하여 활동의 실속성과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매년 축제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축제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여 축제의 통폐·합화 방안을 마련하고, 축제평가를 토대로 집중 육성축제를 선정함.
- 축제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제주형 축제평가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제주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최종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마련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1년동안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집중 육성 축제와 유사한 축제의 통·폐합화 방안, 개별 축제의 발전전략 등을 마련함.



<그림 4-2> 제주지역 축제 통폐·합 방안 흐름도

#### 나. 제주형 평가기준표의 개발

- 제주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축제 관광상품화 평가체계를 제안하면 다음 <표 4-3>과 같음. 여기서는 축제 관련 평가 항목을 크게 축제전, 진행, 후 등의 3단계로 나누어 구분하였음.
- 세부항목은 총20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중요성에 따라 배점을 할당하였음. 또한 구체적 수치가 필요한 항목의 경우에는 비율별 배점을 두어 가능한 한 축제평가를 계량화 가능하게 하였음.
- 또한 지나치게 복잡한 평가항목은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항목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능한 한 단순화하는 과정을 거쳤음.

<표 4-3> 제주형 우수축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구분	비율	세부항목	점수
축제전 평가	20%	독창성과 참신성	12점
		지역특성과의 조화여부	10점
		전담조직의 여부(조직체계의 적절성)	6점
		축제기획(취지)와 프로그램의 적절성	6점
		사전홍보에 의한 인지도	6점
축제중 평가	60%	주민참여도(프로그램의 준비여부)	15점
		유인관광객 비율	20점
		접근성(안내체계) 및 내부이용동선	10점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벤치 등)	6점
		캐릭터 및 축제상품 개발	10점
		음식의 질과 가격	10점
		타관광지와와의 연계성	5점
		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다양성	10점
		재방문비율	10점
		기획과 실행의 일관성 정도	10점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14점
축제후 평가	20%	축제후 언론의 긍정적 보도여부	8점
		사후처리 (쓰레기처리, 시설물 철거 및 재활용 여부)	10점
		지자체의 지원정도와 의지	8점
		지역경제과급효과	14점
총 계	100%		200점

- ※ 구체적 수치기준이 필요한 경우의 점수(안)
- 관광객 비율: 5% 미만(7점), 6~10%(10점), 11~15%(15점), 16% 이상(20점)
  - 재방문비율: 10% 미만(5점), 11~20%(7점), 21% 이상(10점)
  - 경제과급효과: 예산의 2배 미만(5점), 3~4배(10점), 5배 이상(14점)
  - 축제후 긍정여론: 지역(3점), 중앙(5점), 국외(8점)
  - 사후처리: 2일 이내 원상복구(10점), 3일(8점), 5일(5점)

## 다. 평가의 실행

### □ 평가대상

- 제주도 및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받는 축제로 한정함.
- 순수민간단체 및 마을 차원의 축제는 평가에서 제외되나 예산지원 요청이 있을 시에는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 평가방법

- 축제전 평가(총점의 20%)는 축제컨셉, 독창성, 사전홍보에 의한 인지도 등을 평가위원 5인의 평가점수중 최저, 최고를 제외한 3인 점수를 평균으로 산정함.
- 축제중 평가(총점의 60%)는 축제운영, 축제내용, 수용체계 등으로 참가객 직접 설문조사(최소 200인 이상)를 통하여 만족도 등을 분석함.
- 축제후 평가(총점의 20%)는 경제파급효과, 언론노출 및 평가, 사후처리(정비) 등으로 평가위원 5인의 평가중 최저, 최고를 제외한 3인 점수를 평균으로 산정함.

### □ 평가결과 : 총 획득점수에 따라 A, B, C 등급화

- A등급(총점의 80% 이상) : 우선 지원축제 및 지원확대
  - B등급(총점의 70%~79%) : 현행 지원유지축제
  - C등급(총점의 70% 미만) : 지원중단축제
- ※ 단, ABC 등급기준은 제주도가 주최하는 축제 및 기타 도외의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축제에 대한 실제평가를 통하여 상하향 조정가능함.
- ※ 예를 들어 도외축제에 대한 모의적용평가 후 제주도의 등급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면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음.
- A등급(총점의 70% 이상) : 우선 지원축제 및 지원확대
  - B등급(총점의 60%~69%) : 현행 지원유지축제
  - C등급(총점의 60% 미만) : 지원중단축제

## 참고문헌

- 김동혁외 3인 공저, 「관광과 축제이벤트론」, 부산 : 신지서원, 2000.
- 김병철, 「강원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1998.
- 문화관광부, 200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5.
- 박철·손해식,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의례분석적 접근과 관광상품화 전략,” 관광학연구 특별호, 제22권 제2호, 한국관광학회, 1998.
- 서희석·이동기, “물리적 환경이 지역축제의 만족과 재방문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개혁과 지방자치 동계학술세미나,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 이강욱,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 방안-금산인삼축제 사례연구-」, 한국관광연구원, 1998.
- 이장주·조현상, “지역축제의 이미지 특성화에 관한 실증연구-우리나라 6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관광학회, 2000.
- 정강환, 「이벤트 관광전략 : 축제와 지역활성화」, 서울 : 일신사, 1996.
- 정삼철, 「충북 밀레니엄 대축제 개최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1998.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축제의 진단과 발전방안, 2000.
- 최철, “축제로서의 놀이판의 이미,” 「한국의 축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 한국관광공사,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기법」, 1995.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유산 관광상품화 방안」, 1996.
- 한국관광공사, 「축제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0.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77호, 2000. 4.
- 함석중, “한국향토문화재의 관광대상화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연 구 진

· 연구책임	신 동 일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	---------------

### 제주형 축제평가모델 개발 연구

---

인 쇄 일	2005. 12
발 행 일	2005. 12
발 행 인	고 부 언(제주발전연구원장)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나라출판 (☎ 753~4635)

---

ISBN 89-88021-96-7 933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